

주한 유럽기업

# 비즈니스 환경 조사

Business Confidence Survey

# 2017



In partnership with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All rights reserved

[www.ecck.eu](http://www.ecck.eu)

## 참여 상공회의소 명단



###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BCCK)

Tel: +82 (0)2 6365 2300, Fax: +82 (0) 2 6365 2301

Email: [administrator@bcck.or.kr](mailto:administrator@bcck.or.kr), Web: [bcck.or.kr](http://bcck.or.kr)

Address: 14th Floor, The-K Twin Towers, 50, Jong-ro 1-gil, Jongno-gu, Seoul 03142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Korea (ECCK)

Tel: +82 (0)2 6261 2700, Fax: +82 (0)2 6261 2730

Email: [ecck@ecck.eu](mailto:ecck@ecck.eu), Web: [www.ecck.eu](http://www.ecck.eu)

Address: 5F, Seoul Square, 416 Hangang-daero, Jung-gu, Seoul 04637



### French-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KCCI)

Tel: +82 (0)2 2268 9505, Fax: +82 (0)2 2268 9508

Email: [welcome@fkcci.com](mailto:welcome@fkcci.com), Web: [www.fkcci.com](http://www.fkcci.com)

Address: 11F, Joy Tower, Teheran-ro 37-gil 7, Gangnam-gu, Seoul 06142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한독상공회의소

###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GCCI)

Tel: +82 (0)2 3780 4600, Fax: +82 (0)2 3780 4637

Email: [info@kgcci.com](mailto:info@kgcci.com), Web: [korea.ahk.de](http://korea.ahk.de)

Address: 8F, Shinwon Plaza, 85, Dokseodang-ro, Yongsan-gu, Seoul 04419



### It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ITCCK)

Tel: +82 (0)2 402 4379, Fax: +82 (0)2 505 409 4379

Email: [itcck@itcck.org](mailto:itcck@itcck.org), Web: [www.itcck.org](http://www.itcck.org)

Address: #309, Keumsan Bldg., 750 Gukhoedae-ro, Youngdeungpo-gu, Seoul, 07236

## 협력 기관



**Belgian-Korean Business Forum (BKBF)**  
Email: [info@bkbk.or.kr](mailto:info@bkbk.or.kr), Web: [www.bkbk.or.kr](http://www.bkbk.or.kr)



**Dutch Business Council Korea (DBCK)**  
Email: [dbcksecretariat@gmail.com](mailto:dbcksecretariat@gmail.com), Web: [www.dbckkorea.com](http://www.dbckkorea.com)  
Address: 10F, Jeongdong Bldg., 21-15 Jeongdong-gil, Jung-gu, Seoul 04518



**Finlan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Korea (FINNCHAM)**  
Tel : +82 (0)31 283 0900  
Email: [korea@finncham.or.kr](mailto:korea@finncham.or.kr), Web: [finncham.or.kr](http://finncham.or.kr)  
Address: Cargotec Korea Ltd, Cargotec MCC Bldg., 371-2 Singal-Dong, Giheung-Gu, Yongin, Kyungki-do 17093



**Norwegian Business Association, Korea (NBA)**  
Tel: +82 (0)2 727 7100, Fax: +82 (0) 2 727 7199  
Email: [jinyeong.Kim@mfa.no](mailto:jinyeong.Kim@mfa.no)  
Address: 13F, Jeong-dong Building, 21-15, Jeongdong-gil, Jung-gu, Seoul 04518



**Span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SCCK)**  
Tel: +82 2 (0)10 8448 4006  
Email: [info@escck.com](mailto:info@escck.com), Web: <http://www.escck.com>  
Address: 14F, Seoul Global Center, 38 Jongro, Jongro-gu Seoul 03188



**Swed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SCCK)**  
Tel: +82 (0)2 739 1466  
Email: [scckinseoul@gmail.com](mailto:scckinseoul@gmail.com), Web: <http://scckkorea.org>  
Address: c/o Business Sweden, 11F, 131 Shinil bldg., Toegye-ro, Jung-gu, Seoul 04537



**Swiss-Korean Business Council (SKBC)**  
Tel: +82 (0)2 542 5982  
Email: [info@skbckorea.org](mailto:info@skbckorea.org), Web: <http://www.skbckorea.org>  
Address: 154-1, Seorin-dong, Jongro-gu, K.P.O Box 2164, Seoul 03187

# ROLAND BERGER 소개

Roland Berger, founded in 1967, is the only leading global consultancy of German heritage and European origin. With 2,400 employees working in 36 countries, we have successful operations in all major international markets. Our 50 offices are located in the key global business hubs. Roland Berger Seoul office was founded in August 2012. The Seoul office is serving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companies based in Korea for domestic and global strategic issues in cooperation with other Roland Berger offices around the world.

Roland Berger advises major international industry and service companie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Our services cover the entire range of management consulting from strategic advice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e.g. new leadership and business models; innovative processes and services; M&A, private equity and restructuring; and management support on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Our firm is owned solely by a group of 220 partners. We share the conviction that the firm's independence provides the basis for unbiased advice to our clients.

At Roland Berger, we combine sound analyses with creative strategies that generate real and sustainable value for the client. We develop and consolidate our expertise in global Competence Centers that focus on specific industries and functional issues. We handpick interdisciplinary teams from these Competence Centers to develop the best solutions.

## Address:

### Roland Berger Ltd

Tower 8 Bldg., 6F, 7 Jong-ro 5 gil, Jongno-gu, Seoul 03157

Tel.: +82 (0)2 2288 0004

Fax: +82 (0)2 2288 0011

Web: <http://www.rolandberger.com>



# 목차

참여 상공회의소 명단 .....	- 2 -
ROLAND BERGER 소개.....	- 4 -
1. 주한 유럽기업 운영현황 .....	- 10 -
1.1 글로벌 전략상 한국의 중요성 .....	- 10 -
1.2 사업개발.....	- 11 -
1.3 한국에서의 사업성과 .....	- 12 -
1.4 수익 및 시장 점유율 .....	- 14 -
1.5 EBIT 와 EBIT 마진 .....	- 17 -
1.6 운영확장.....	- 19 -
1.7 인재/채용 .....	- 21 -
1.8 비용절감 이니셔티브 .....	- 24 -
2. 사업전망 .....	- 25 -
2.1 성장 .....	- 27 -
2.2 경쟁 .....	- 28 -
2.3 수익 .....	- 29 -
2.4 생산성 .....	- 30 -
2.5 인건비 .....	- 31 -
3. 기업 도전과제.....	- 32 -
3.1 경제/재무관련 이슈 .....	- 33 -
3.2 규제/정치관련 이슈 .....	- 34 -
3.3 노동관련 이슈 .....	- 36 -
3.4 사회/기간시설관련 이슈 .....	- 37 -
4. 한국경제의 원동력 .....	- 37 -
4.1 규제/정책 .....	- 39 -
4.2 사회/기간시설 .....	- 40 -
4.3 경제/교역 .....	- 41 -
5. 한국의 법/규제환경과 정부 .....	- 42 -
5.1 한국의 규제장벽.....	- 42 -
5.2 소송 및 규제 신뢰도와 효과 .....	- 43 -
5.3 정부개혁에 대한 의견 .....	- 44 -
5.4 유럽과 한국정부 대응에 대한 입장 .....	- 45 -
5.5 기업환경관련 정부정책.....	- 46 -
6. 새 정부와 정책이 미치는 영향.....	- 47 -

## 그림 목차

그림 1: 글로벌 전략상 한국의 중요성 - 연간 비교 .....	- 10 -
그림 2: 사업개발 - 연간 비교 .....	- 11 -
그림 3: 한국에서의 사업성과 - 연간 비교 .....	- 12 -
그림 4: 한국에서의 사업성과 - 산업별 분석 .....	- 13 -
그림 5: 수익 및 시장 점유율 .....	- 14 -
그림 6: 수익 - 산업별 분석 .....	- 15 -
그림 7: 시장 점유율 - 산업별 분석 .....	- 16 -
그림 8: EBIT 및 EBIT 마진 .....	- 17 -
그림 9: EBIT- 산업별 분석 .....	- 18 -
그림 10: EBIT 마진 - 산업별 분석 .....	- 18 -
그림 11: 한국에서의 사업확장계획 .....	- 19 -
그림 12: 한국에서의 사업확장계획 - 산업별 분석 .....	- 20 -
그림 13: 인재/채용관련 대응 .....	- 21 -
그림 14: 정규직 변동 - 산업별 분석 .....	- 22 -
그림 15: 이직률 - 산업별 분석 .....	- 23 -
그림 16: 금년도 원가절감 예측 .....	- 24 -
그림 17: 사업전망 - 개요 .....	- 25 -
그림 18: 사업전망 항목별 순위 .....	- 25 -
그림 19: 성장 - 산업별 .....	- 27 -
그림 20: 경쟁 - 산업별 .....	- 28 -
그림 21: 수익 - 산업별 .....	- 29 -
그림 22: 생산성 - 산업별 .....	- 30 -
그림 23: 인건비 - 산업별 .....	- 31 -
그림 24: 주요 5대 기업 도전과제 - 2017/2016/2015 .....	- 31 -
그림 25: 경제관련 도전과제 .....	- 33 -
그림 26: 규제/정치관련 도전과제 .....	- 34 -
그림 27: 노동관련 도전과제 .....	- 36 -
그림 28: 사회/기간시설관련 도전과제 .....	- 37 -
그림 29: 2017, 2016, 2015 년 주요 5대 경제성과 동인 .....	- 37 -
그림 30: 성과동인 - 규제/정책 .....	- 37 -
그림 30: 성과동인 - 규제/정책 .....	- 39 -
그림 31: 성과동인 - 사회/기간시설 .....	- 40 -

그림 32: 성과동인 - 경제/교역 .....	- 41 -
그림 33: 규제장벽 - 연간 비교 .....	- 42 -
그림 34: 규제 및 소송관련 대응 .....	- 43 -
그림 35: 정부개혁 - 연간 비교.....	- 44 -
그림 36: 법/규제환경 - 연간 비교.....	- 45 -
그림 37: 사업환경관련 정부정책 - 연간 비교 .....	- 46 -
그림 38: 고용정책 .....	- 47 -
그림 39: 일반 정책조치 및 외교문제 .....	- 48 -
그림 40: 산업별 분석.....	- 50 -
그림 41: 한국에서의 사업활동 년수.....	- 50 -
그림 42: 소유구조 분석 .....	- 51 -
그림 43: 기업규모별 분석.....	- 51 -
그림 44: 연구개발(R&D)구조 및 생산설비 .....	- 52 -

## 설문조사 동기 및 구성

주한 유럽기업: 비즈니스 환경 조사 (Business Confidence Survey)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기업들의 의견, 성과 및 도전과제 대한 연간 요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해마다 수행되고 있다.

조사내용의 구성과 데이터 분석의 주요 지침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조사 참여를 돕고자 기존 방법과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기업의 전략과 입장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간 비교가 가능한 동일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총 25개 질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에는 108개 기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모든 질문에 응답한 것은 아니며, 총 응답자수는 위의 각 그래프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조사 참여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주도로 주한 영국 상공회의소, 한불 상공회의소,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총 5개 유럽국가 상공회의소가 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본 보고서는 Roland Berger 서울 사무소와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다. 조사분석을 위한 핵심 기관들 외에도, 한-벨기에 비즈니스 포럼,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위원회(Dutch Business Council Korea), 주한 노르웨이 비즈니스 협회(Norwegian Business Association), 주한 스페인상공회의소, 주한 스웨덴상공회의소로부터 단체 회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는 등의 지원을 받았다

2017년 조사결과는 다음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 및 작성되었다.

- 2017년 수집된 응답에 대한 개요 및 기술
- 2017년 수집된 응답과의 비교분석
- 2017년 응답에 대한 산업별 개요 및 특징설명

## 종합보고 (EXECUTIVE SUMMARY)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경제성장률인 2.8%에 비하여 높은 3.1%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수출은 반등하여 사상 최고치인 5,739억 달러 (2016년 4,95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한국 대통령 선거의 가려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와 같이 향후에도 유럽 업계의 중요한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폐지 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나 국제 무역과 관련되어서는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새 정권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중요한 개혁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혁들이 앞으로 구체화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국에서 3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총 매출 규모가 280억 유로에 달하는 108개 회사의 경영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영진들은 한국이 중요한 시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업 대표들 중 44%는 한국이 전략적 주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47%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61%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2년 전에 비하여 더 어려워 졌다고 대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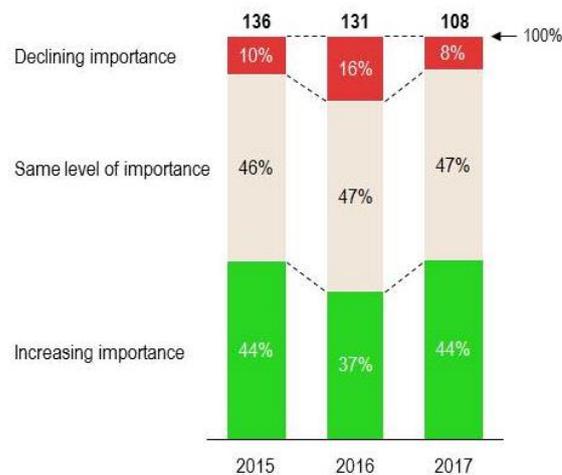
유럽 업계는 한국 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건비 증가, 불명확한 규칙과 규정들, 시장 진입 장벽, 자유재량에 따른 법령 시행 등에 대한 일부 검토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은 법규의 개선, 투명한 재정 정책, 적정경쟁 및 내수 (domestic consumption)의 진작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과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산업 참여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장애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가 사업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들이 한국 사회, 한국 경제 및 유럽 업계에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의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1. 주한 유럽기업 운영현황

## 1.1 글로벌 전략상 한국의 중요성

그림 1: 글로벌 전략상 한국의 중요성 - 연간 비교

How would you characterize the importance of Korea in your company's overall global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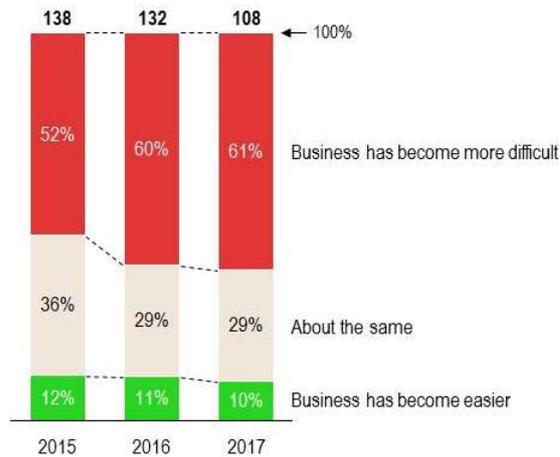
한국은 유럽기업들에게 있어 중요한 시장이며, 그 유효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응답기업의 44%는 전반적인 글로벌 사업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47%는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8%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응답분석을 통해 유럽기업들에게 한국이 중요한 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응답기업의 44%는 한국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6년 37%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에는 다시 44%로 증가했다. 2015년도 응답기업 중 46%는 한국시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응답기업의 47%는 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한 기업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0%와 16%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8%로 감소했다.

## 1.2 사업개발

그림 2: 사업개발 - 연간 비교

How has doing business in Korea for your company developed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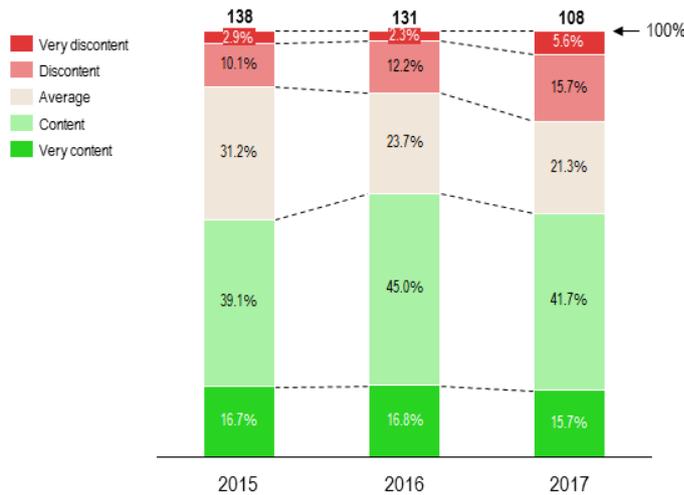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 중 61%의 유럽기업들은 사업환경이 악화되었으며, 29%는 유사한 수준을, 그리고 응답 기업의 10%는 사업환경이 완화되었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사업환경은 전체 52%가 응답한 2015년과 비교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업환경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2015년 36%였으며, 2016년과 2017년의 29%보다 감소했다. 사업환경이 완화되었다고 말한 기업은 2015년 12%, 2016년 11%, 그리고 2017년에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 1.3 한국에서의 사업성과

그림 3: 한국에서의 사업성과 - 연간 비교

How do you view your company's performanc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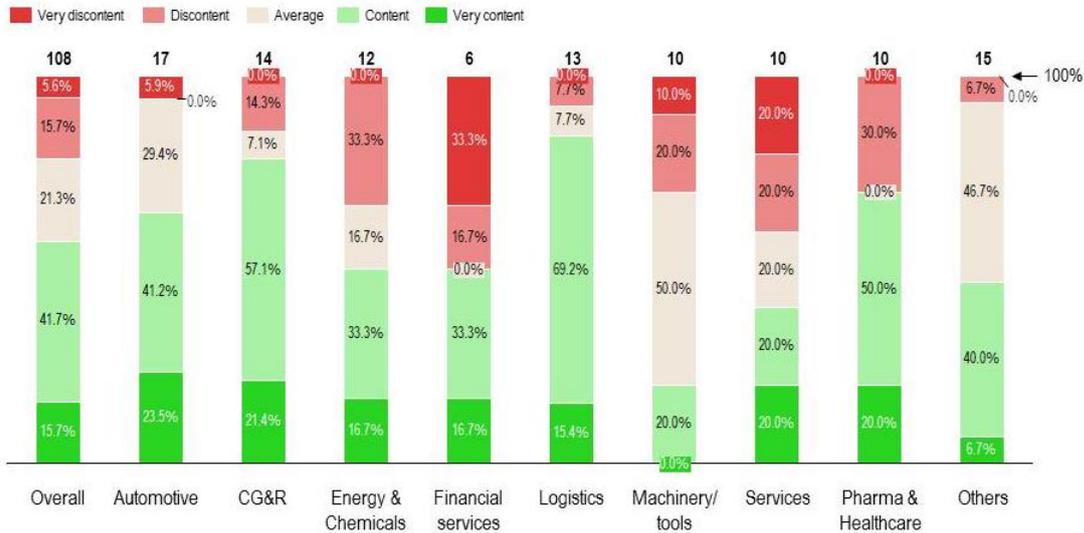
유럽기업들은 대체로 한국에서의 사업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중 16%는 사업성과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42%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수준이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답한 기업은 21%인 반면, 불만족 및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16%와 6%로 나타났다.

연간 비교를 살펴보면, 사업성과를 긍정적(상당히 만족 및 만족)으로 답한 기업은 2015년 전체 56%(상당히 만족: 17%, 만족: 39%), 2016년 62%(상당히 만족: 17%, 만족: 45%)이었으며, 2017년에는 57%(상당히 만족: 16%, 만족: 42%)로 나타났다. 기업성과를 중립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2015년 31%에서 2016년 24%, 그리고 2017년 21%로 점차 감소했다.

사업성과가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0%, 2016년 12%, 그리고 2017년 16%로 증가했다. 사업성과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 밝힌 기업들은 2015년 전체 3%를 차지했으며, 동일 지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2%와 6%를 나타냈다.

그림 4: 한국에서의 사업성과 - 산업별 분석

How do you view your company's performance in Korea?



기업 성과만족도는 산업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기업성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분야는 물류(만족 혹은 상당히 만족: 85%), 소비재/소매(78%), 제약/의료(70%)분야였으며, 반면 에너지/화학(50%), 금융서비스(50%), 서비스(40%)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기업 성과에 대한 불만족(상당히 불만족 및 불만족)이 가장 큰 분야는 금융서비스(50%)와 서비스(40%) 산업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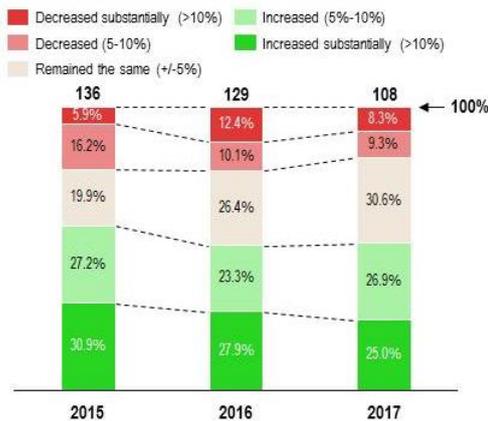
기업 성과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파악한 산업분야는 물류(2017년: 85%, 2016년: 82%), 자동차(2017년: 65%, 2016년 71%), 소비재/소매(2017년: 78%, 2016년 67%)로 나타났다. 에너지/화학(2017년 50%, 2016년 40%)분야와 제약/의료(2017년: 70%, 2016년 30%) 분야의 기업성과 평가는 2017년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금융서비스(2017년: 50%, 2016년 63%), 서비스(2017년: 40%, 2016년 55%) 분야의 만족도는 각각 13%와 15%로 하락했다. 만족도 하락과 함께 금융서비스(2017년: 50%, 2016년: 12%)와 서비스(2017년: 40%, 2016년: 27%) 분야의 불만족(상당히 불만족 및 불만족)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 수익 및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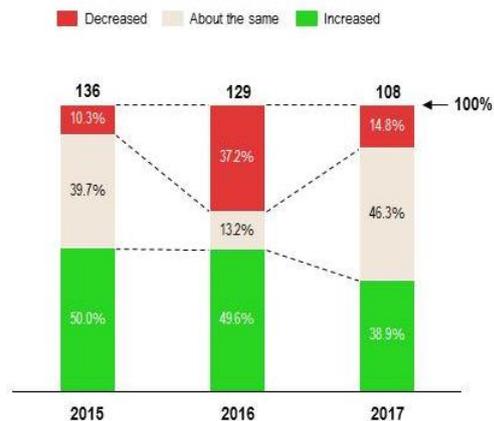
그림 5: 수익 및 시장 점유율

On revenue and market share growth

How did your company's revenue in Korea change in 2017 compared to that of 2016?



How did your market share evolve in 2017 versu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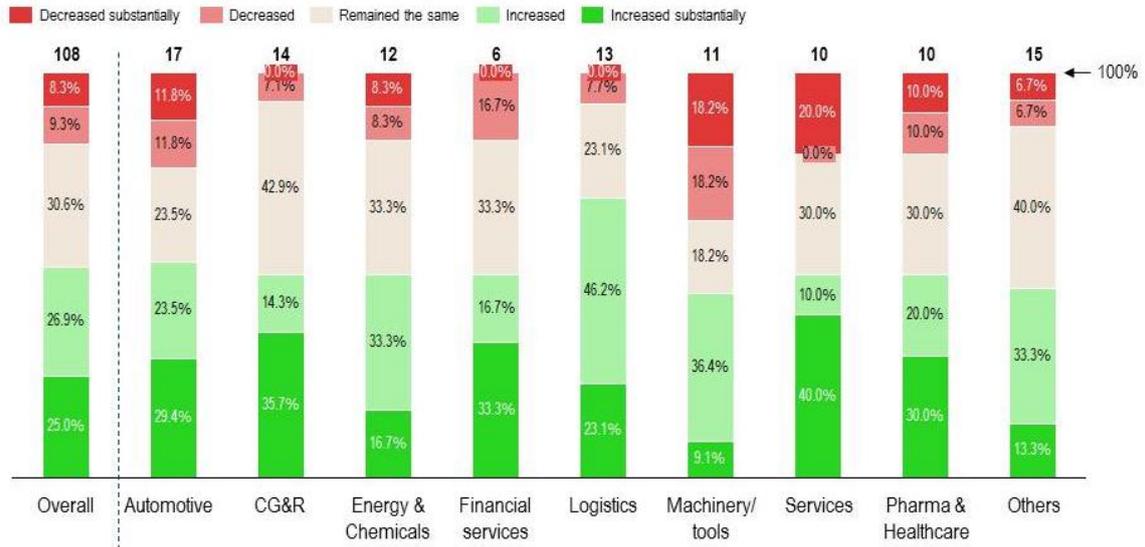
응답기업의 52%는 판매실적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중 10% 이상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은 25%에 달했으며, 31%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18%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응답기업의 8%는 수익이 1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년대비 매출증가(매출증가 및 대폭증가)에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2015 년과 2016 년 각각 58%, 51%였으며, 2017 년에는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적이 하락(매출 하락 및 대폭 하락)했다고 답한 기업은 22%를 기록한 2015 년과 2016 년과 비교에 2017 년에는 18%를 기록했다. 판매실적이 동일 수준이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 년 20%, 2016 년 26%에 이어 2017 년에도 3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 변화와 함께 수익변동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9%(2016 년: 50%)는 2016 년 대비 자사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동일 수준 및 점유율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46%(2016 년: 13%)와 15%(2016 년: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수익 - 산업별 분석

How did your company's revenue in Korea change in 2017 compared to that of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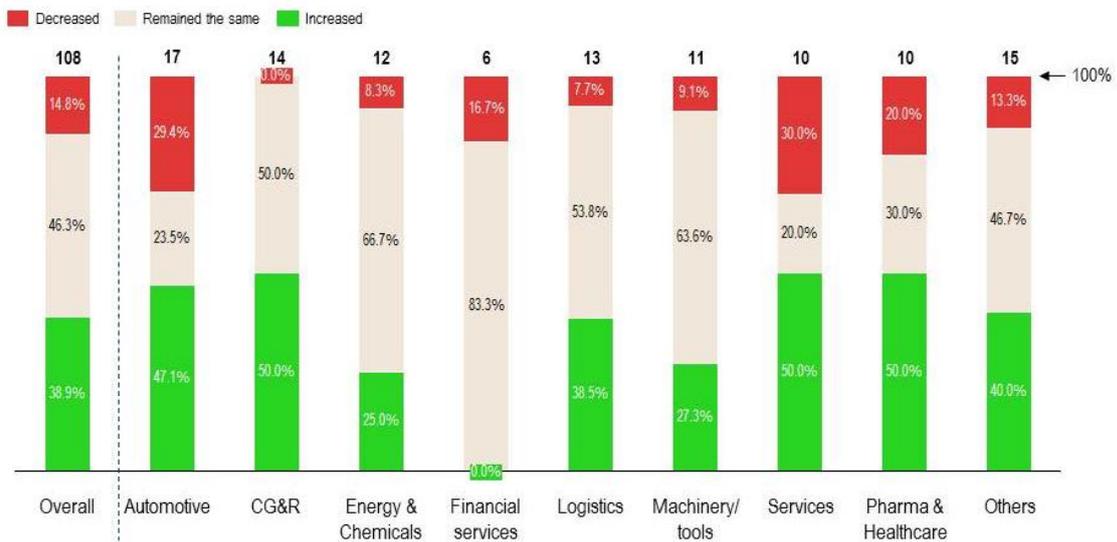


판매실적에 긍정적으로 답한 산업부문은 물류(69%, 2016년: 18%), 자동차(53%, 2016년 71%), 소비재/소매(50%, 2016년 67%), 에너지/화학(50%, 2016년 27%), 금융서비스(50%, 2016년: 37%), 서비스(50%, 2016년: 63%), 제약/의료(50%, 2016년 50%)로 모두 판매실적이 증가 혹은 대폭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기계/장비분야 전망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업의 36%(2016년: 38%)는 판매가 감소(하락 및 대폭 하락)했다고 답했다. 자동차분야 역시 응답 기업의 23%(2016년: 8%)가 판매실적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분야 역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으며, 이들 중 실적이 10%이상 대폭 하락했다고 말한 기업은 20%에 달했다(2016년: 9%).

그림 7: 시장 점유율 - 산업별 분석

How did your market share evolve in 2017 versus 2016?



소비재/소매(2016년: 73%), 제약/의료(2016년: 60%), 그리고 서비스(2016년: 36%)분야 응답 기업의 50%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자동차 기업의 47%(2016년: 54%) 역시 점유율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해당기업의 83%(2016년: 38%)는 2017년에도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에너지/화학 분야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동 분야기업의 67%(2016년: 46%)는 성장이라는 안정적인 판매실적 증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기업의 30%(2016년: 9%)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답했으며, 자동차 기업의 경우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30%(2016년: 8%)에 달했다.

### 1.5 EBIT 와 EBIT 마진

그림 8: EBIT 및 EBIT 마진

On EBIT and EBIT Margin

Please characterize the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of your company in Korea i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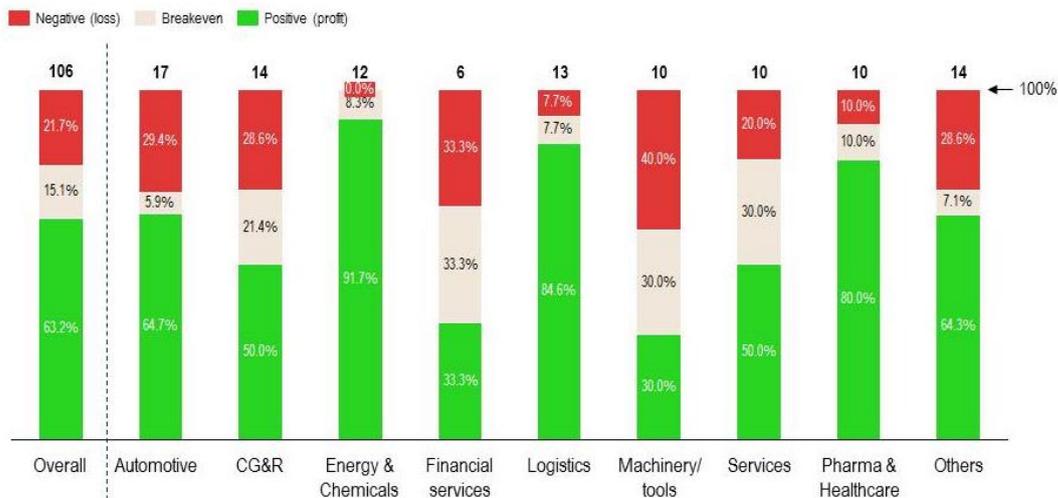
How did the EBIT margin Korea compare to your company's worldwide margins in 2017?



2017년 이자 및 세전 이익(EBIT) 흑자를 기록한 유럽 기업들은 63%(2016년: 78%)로 나타났다. 15%(2016년: 9%)는 예전 수준을 기록했으나, 22% (2016년: 13%)는 EBIT 적자를 나타냈다. 응답기업의 27%(2016년: 26%)는 영업수익률(EBIT 마진)이 해당 그룹 평균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35%(2016년: 38%)와 38%(2016년: 36%)는 EBIT 마진이 기업 평균과 유사, 혹은 평균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9: EBIT- 산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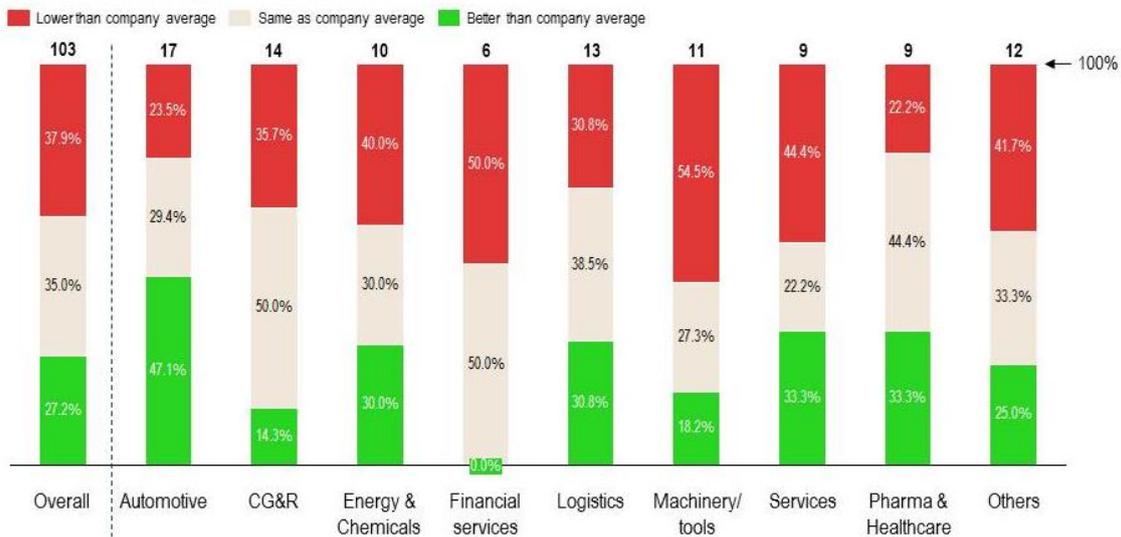
Please characterize the EBIT of your company in Korea in 2017



에너지/화학과 물류기업들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화학 기업의 92%(2016년: 82%), 그리고 물류기업의 85%(2016년: 88%)가 EBIT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다수의 EBIT 흑자를 나타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분야는 제약/의료: 80%(2016년: 70%)와 자동차: 65%(2016년: 83%) 부문이었으며, 기계/장비 기업의 40%(2016년: 8%)와 금융서비스 기업의 33%(2016년: 29%)는 평년기록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2016년: 13%)와 소비재/소매(2016년: 7%) 기업 중 29%는 2017년 EBIT 감소를 기록했다.

그림 10: EBIT 마진 - 산업별 분석

How did the EBIT margin of your Korean operations compare to your company's worldwide margins i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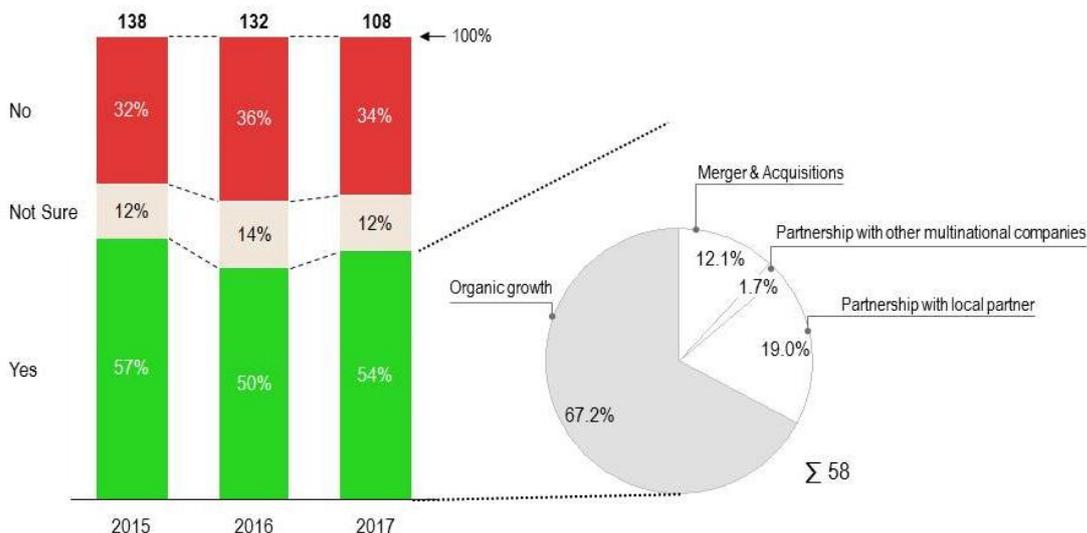


자동차 산업분야 법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EBIT 마진이 동 기업의 전세계 영업수익률보다 높은 기업은 47%(2016년: 38%)로 나타났다. 해외 실적보다 한국에서 높은 영업수익률을 보인 다른 산업분야로는 서비스: 33%(2016년: 27%), 제약/의료: 33%(2016년: 10%), 물류: 31%(2016년: 24%), 에너지/화학: 30%(2016년: 27%)가 있었다. 해외실적과 한국에서의 영업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는 산업분야는 전체의 50%를 기록한 소비재/소매(2016년: 23%)와 금융서비스(2016년: 50%)였으며, 응답기업의 44%가 답한 제약/의료분야(2016년: 30%)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기계/장비 분야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 세계영업수익 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분야 기업의 55%(2016년: 15%), 금융서비스 기업의 50%(2016년: 25%)가 이와 같이 응답했다. 서비스(44%, 2016년: 27%), 에너지/화학(40%, 2016년: 36%), 소비재/소매(36%, 2016년: 62%)와 물류(31%, 2016년: 24%)기업 대부분의 영업수익이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 1.6 운영확장

그림 11: 한국에서의 사업확장계획

Are you planning to expand your operations in Korea in 2018? If yes, by which m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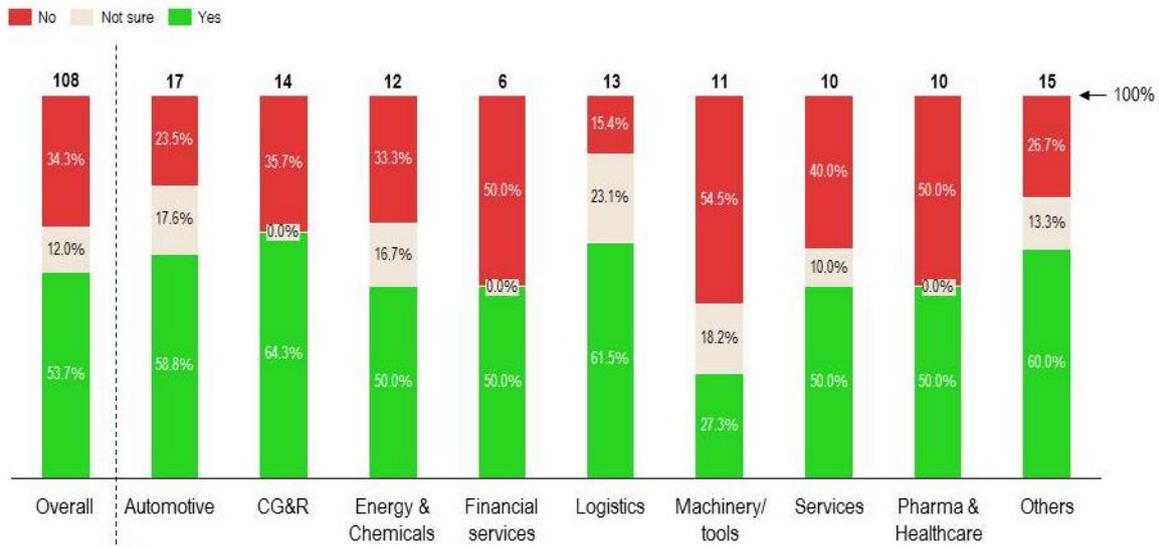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의 54%가 2018년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기업의 50%가 투자 의향을 밝힌 2016년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활동 확대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답한 기업은 12%였으며, 2016년에는 전체의 14%가 이와 같이 답했다. 반면, 내년도 운영확대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016년 36% 대비 34%를 기록했다.

사업확대를 위한 방법으로는 유기적 성장(2018년 사업확장 의향을 밝힌 응답 기업의 6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내기업과의 파트너십(19%)과 인수합병(12%)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답변은 2016년 답변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한국에서의 사업확장계획 - 산업별 분석

Are you planning to expand your operations in Korea i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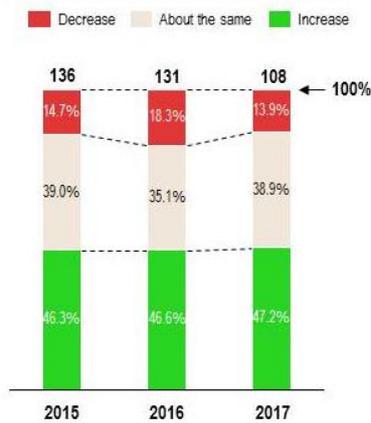
사업확대 계획은 전 산업분야에서 나타났으나 응답 기업의 각 64%와 62%가 그렇다고 답한 소비재/소매(2016년: 73%)와 물류(2016년: 24%) 분야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59%(2016년: 58%), 에너지/화학: 50%(2016년: 36%), 금융서비스: 50%(2016년: 63%), 서비스: 50%(2016년: 55%), 제약/의료: 50%(2016년: 30%) 기업 역시 사업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기계/장비 분야의 경우 동 분야기업의 27%(2016년: 39%)만이 사업확대 계획이 있다고 말했으며, 55%(2016년: 54%)는 확대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2016년: 38%)와 제약/의료 (2016년: 70%) 기업의 절반이 사업확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서비스: 40% (2016년: 27%), 소비재/소매: 36% (2016년: 27%), 에너지/화학: 33% (2016년: 55%) 분야의 상당 기업이 2018년도 사업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7 인재/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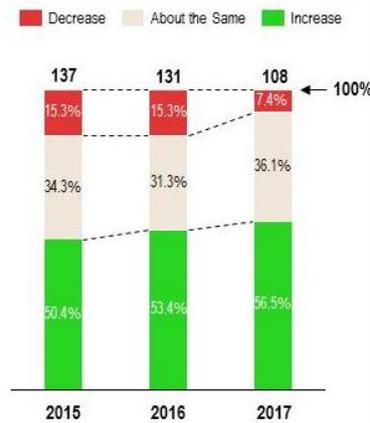
그림 13: 인재/채용관련 대응

On human resources related ma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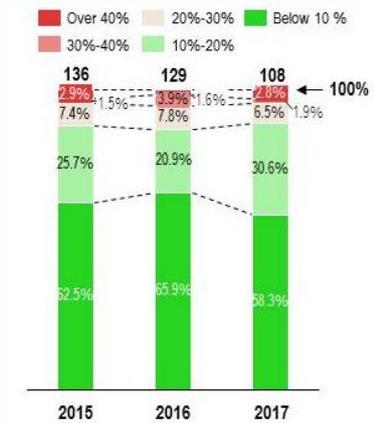
What has happened to the number of permanent positions in Korea last year?



How do you expect the number of permanent positions in Korea to evolve over the next two years?



What was the level of your staff turnover i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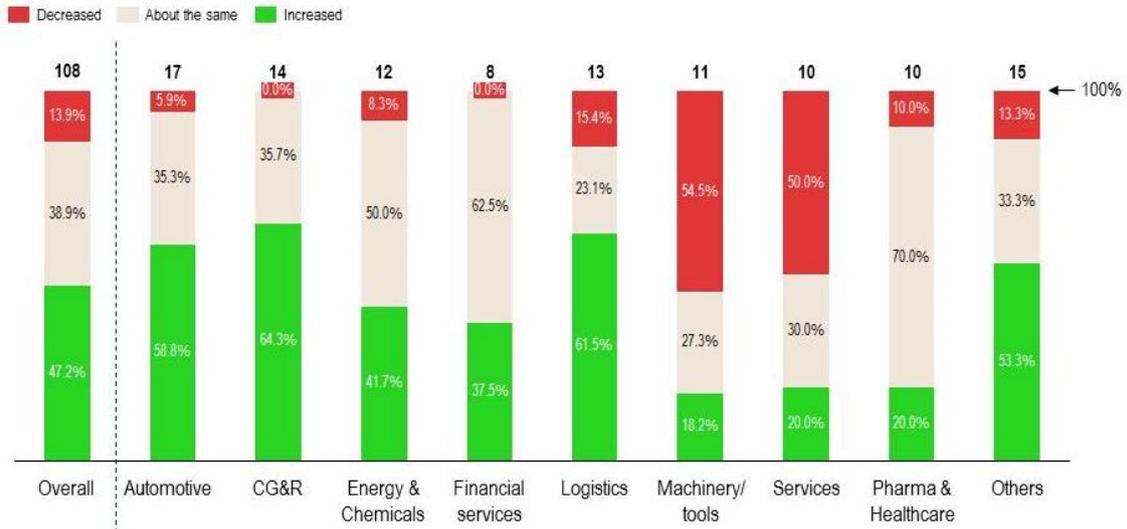
2016 년과 마찬가지로 2017 년에도 응답기업의 47%가 정규직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9%는 동일한 수로 정규직 직원을 유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년 대비 4 퍼센티지포인트(pp)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 기업의 14%가 지난해 18%에 비해 고용인원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법인 중 57%는 추가 정규직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 항목은 작년 53%를 기록했다. 36%는 인력 증강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2016 년: 31%), 7%는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 년: 15%).

이직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0% 미만(이직률 10% 미만, 10~20%미만 포함)의 이직률을 보인 기업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88%와 87%, 그리고 2017년에는 88%를 기록했다. 반면, 40% 이상 이직률을 보인 응답기업은 3%였다. 이러한 수치는 2015년에도 목격되나, 2016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4: 정규직 변동 - 산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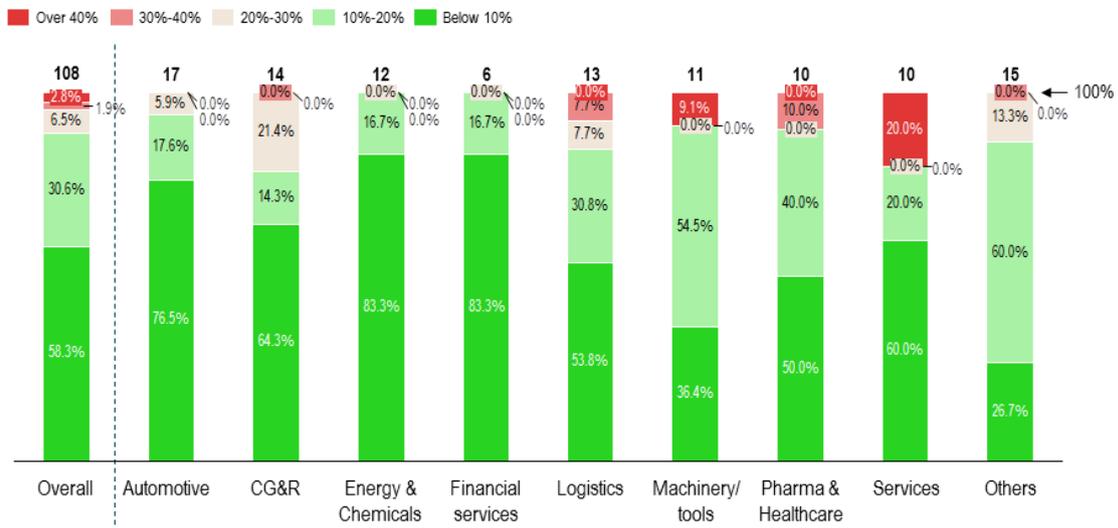
What has happened to the number of permanent positions in Korea last year?



2017년 정규직 채용 증가가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소비재/소매: 64%(2016년: 53%), 물류: 62%(2016년: 29%), 자동차: 59%(2016년: 29%) 순이었다. 반면, 추가 정규직 고용은 서비스: 20%, 제약/의료: 20%, 기계/장비: 18%로 동 분야에서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 동일한 인력수준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제약/의료(응답기업의 70%, 2016년 50%), 금융서비스(63%, 2016년: 25%), 그리고 에너지/화학(50%, 2016년: 9%) 분야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감축은 대체로 기계/장비(55%, 2016년: 39%)와 서비스(50%, 2016년: 55%)에서 나타났다.

그림 15: 이직률 - 산업별 분석

What was the level of your staff turnover in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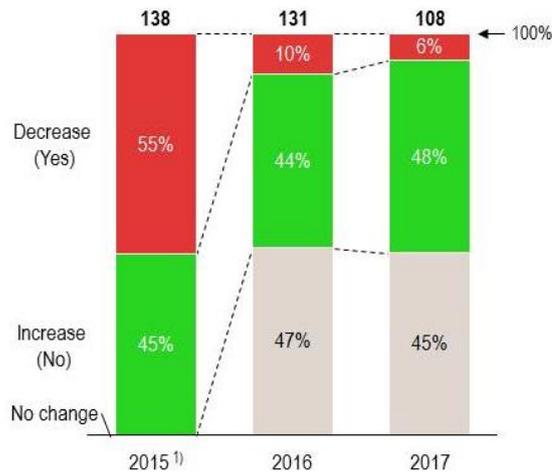


이직률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화학 및 금융서비스 기업의 이직률은 0~2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분야 역시 동 분야 응답 기업의 94%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동 분야 기업의 20%가 자사의 이직률이 40%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 1.8 비용절감 이니셔티브

그림 16: 금년도 원가절감 예측

Do you plan either to increase or to decrease investment / operational expenses? <sup>1)</sup>



<sup>1)</sup> In 2015,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different question – “Do you plan on implementing cost saving initiatives in Korea this year?”, and the respondents could answer either “Yes” or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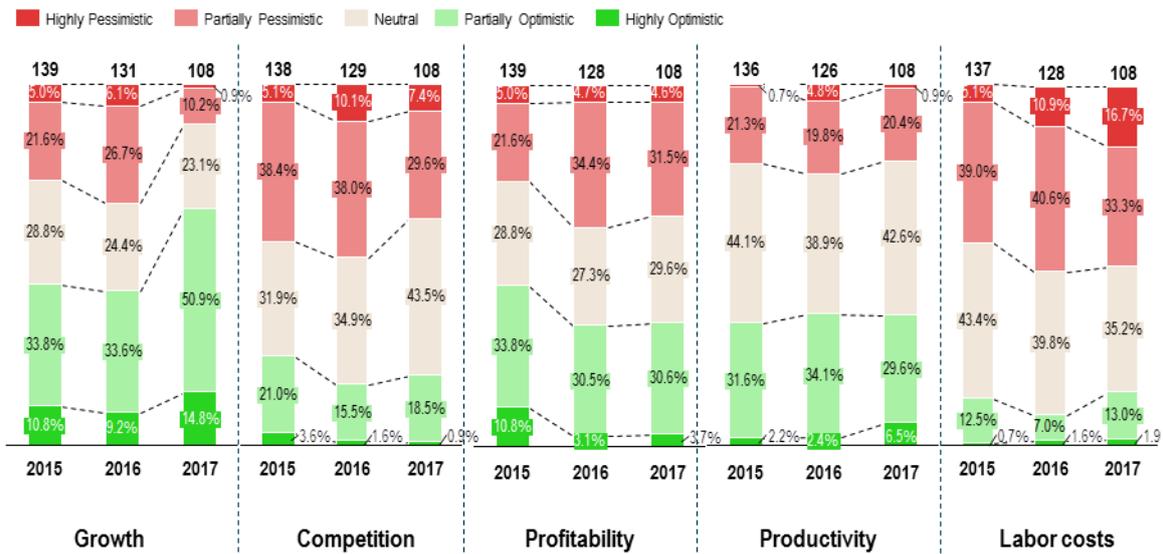
2017년 조사기업의 6%는 전년의 10%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운영비용 투자를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법인의 48%는 사업투자를 증가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6년의 44%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응답기업의 45%는 향후 재무투자에 변경사항이 없다고 말했다(2016년: 47%).

## 2. 사업전망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성장, 경쟁, 수익, 생산성, 인건비라는 5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2 년간의 사업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요청했다.

그림 17: 사업전망 - 개요

How would you describe the business outlook for your industry in Korea within the next 2 years?



응답 기업 대표 중 66%는 향후 2 년간의 성장 전망에 대해 다소 혹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중립적 및 다소 혹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각각 23%와 11%를 차지했다. 2016 년과 비교해 낙관적인 전망은 43%에서 23pp 증가하여 66%를 기록했으며,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33%에서 22pp 감소한 11%로 나타났다. 경쟁 관련 질문에서 기업 리더의 19% (2016 년: 17%)가 다소 혹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답했으며, 44%(2016 년: 35%)는 중립적, 그리고 37%(2016 년 48%)는 다소 혹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영업실적 전망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4%는 다소 혹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답했으며, 중립적, 다소 혹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30%와 36%를 나타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각각 34%, 27%, 그리고 39%를 기록했다. 2017 년 기업 대표들 중 36%(2016 년: 36%)가 생산성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중립적, 다소 혹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은 각각 43%(2016 년: 39%)와 21%(2016 년: 25%)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여전히 우려 분야로 지적되었다. 향후 2 년간 인건비 전망에 대해 응답 기업 대표의 15%(2016 년: 9%)만이 낙관적으로 평가했으며, 35%(2016 년: 40%)는 중립적, 그리고 나머지 50%(2016 년: 51%)는 다소 혹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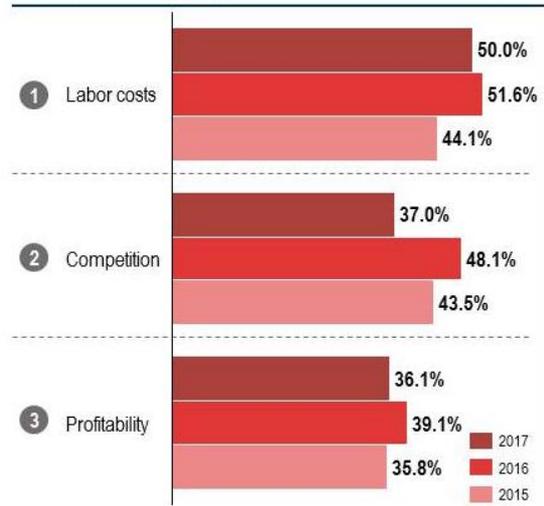
그림 18: 사업전망 항목별 순위

Ranking of the outlook items by optimistic and pessimistic responses

Optimistic ranking<sup>1)</sup>



Pessimistic ranking<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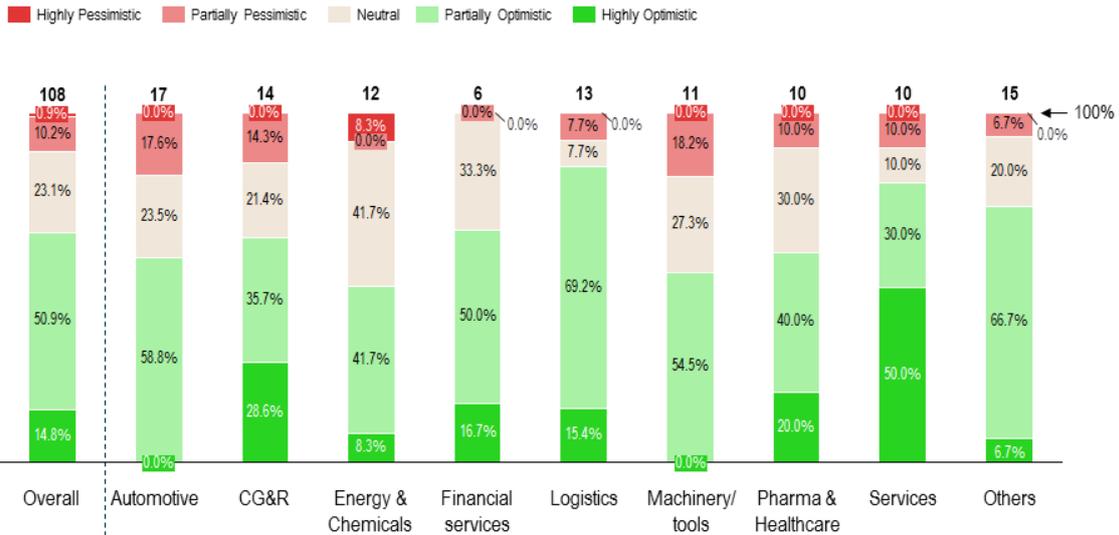
1) Combined percentage of "Optimistic" and "Partially Optimistic"; 2) Combined percentage of "Pessimistic" and "Partially Pessimistic"

유럽 기업들은 성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2014년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을 당시 재계 지도자의 46%는 성장에 대해 다소 낙관적 혹은 대체로 낙관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러한 수치는 2015년 45%, 2016년 43%로 다소 감소했다. 향후 2년간 성장전망 역시 2017년 참여 기업 리더들 중 66%가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는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다음으로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생산성이었으며, 해당 응답률은 2015년과 2016년 수준과 유사한 36%로 나타났다. 수익전망의 경우 응답 기업의 34%는 흑자를 예측했으며, 완만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년 대비 응답률이 다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인건비 전망은 유럽 기업들의 주요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다. 기업 리더의 50%는 다소 혹은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전년 수치인 52%와 비교에 다소 하락했으나, 44%를 기록한 2015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실적의 경우 기업 대표의 36%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1 성장

그림 19: 성장 - 산업별

How would you describe the business outlook for your industry in Korea within the next 2 years in terms of: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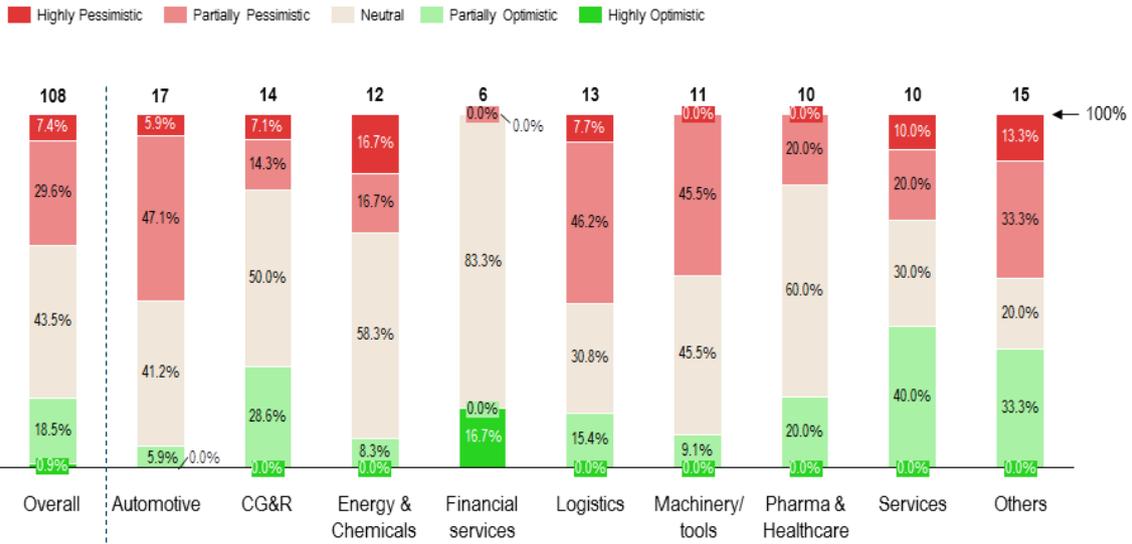


향후 2년간 성장전망은 전 산업분야가 50%이상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보인 분야는 85%를 기록한 물류 부문이었으며(2016년: 29%), 서비스: 80%(2016년: 55%), 금융서비스: 67%(2016년: 50%), 소비재/소매: 64%(2016년: 80%), 제약/의료: 60%(2016년: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모든 기업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에너지/화학, 금융서비스, 제약/의료 기업 중 각각 42%, 33%, 30%는 다소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관적인 전망은 기계/장비 및 자동차 분야에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기업의 18%는 성장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 2.2 경쟁

그림 20: 경쟁 - 산업별

How would you describe the business outlook for your industry in Korea within the next 2 years in terms of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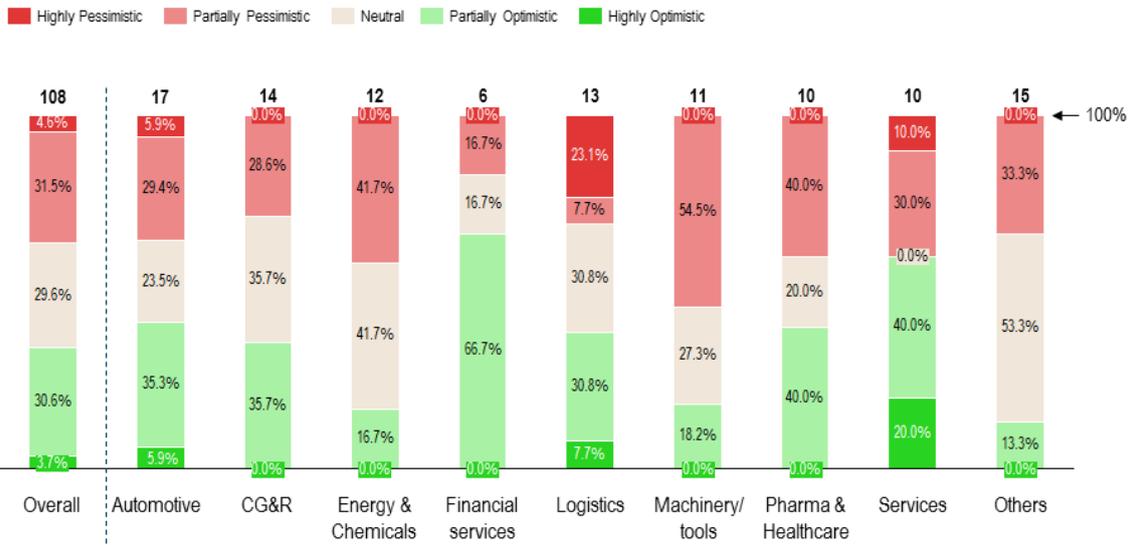


향후 2년간의 경쟁 전망은 낙관적이기 보다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혹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산업분야는 서비스(40%, 2016년: 46%), 소비재/소매(29%, 2016년: 57%), 제약/의료(20%, 2016년: 10%)로 나타났다. 기업 리더의 상당수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이는 주로 금융서비스(83%, 2016년: 38%)와 제약/의료(60%, 2016년: 20%) 분야에서 나타났다. 향후 2년간 경쟁환경이 다소 혹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업 리더들은 주로 물류(54%, 2016년: 35%), 자동차(53%, 2016년: 35%), 기계/장비(46%, 2016년: 54%) 분야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3 수익

그림 21: 수익 - 산업별

How would you describe the business outlook for your industry in Korea within the next 2 years in terms of Profit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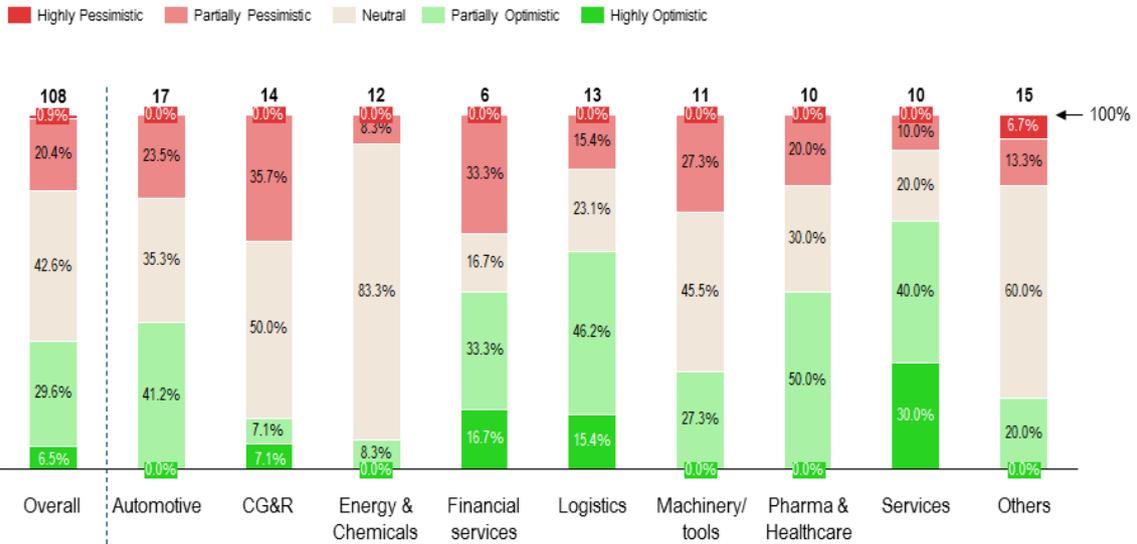


향후 2년간 수익전망에 대해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업분야는 금융서비스 부문으로, 동 분야 응답자의 2/3(2016년: 13%)가 다소 낙관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소 혹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1/3(2016년: 50%)에 불과했다. 서비스 기업 리더의 60%(2016년: 46%)는 또한 향후 2년간 실적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분야의 낙관적인 응답은 다소 적게 나타났다. 자동차: 41%(2016년: 26%), 제약/의료: 40%(2016년: 10%), 물류: 39%(2016년: 41%), 소비재/소매: 36%(2016년: 50%) 순이었으며, 특히 기계/장비: 18%(2016년: 23%), 에너지/화학: 17%(2016년: 18%)이 두드러졌다. 화학과 소비재/소매 분야의 경우 다소 중립적인 견해가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화학: 42%(2016년: 18%), 소비재/소매: 36%(2016년: 36%)를 기록했다. 기계/장치(55%, 2016년 54%), 에너지/화학(42%, 2016년: 64%), 제약/의료(40%, 2016년: 70%), 자동차(35%, 2016년: 35%) 분야 기업 대표 상당수가 다소 혹은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2.4 생산성

그림 22: 생산성 - 산업별

How would you describe the business outlook for your industry in Korea within the next 2 years in terms of Produ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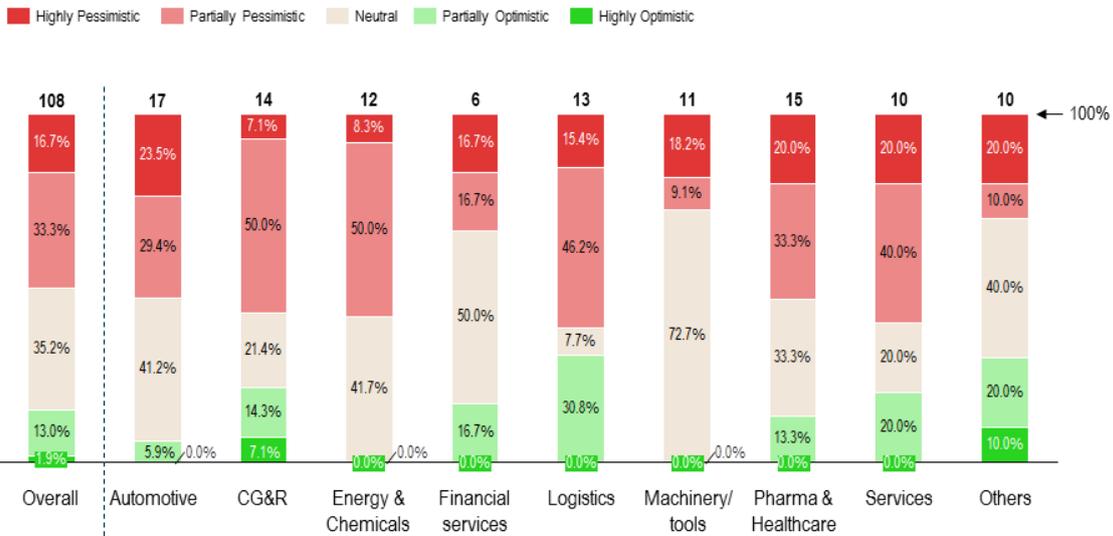


생산성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 분야 응답자의 70%(2016년: 73%)가 다소 혹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다음으로 물류(62%, 2016년: 65%), 금융서비스(50%, 2016년: 13%), 제약/의료(50%, 2016년: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화학 부문으로 해당 분야 응답자의 다수인 83%(2016년: 55%)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비재/소매와 금융서비스, 그리고 기계/장비 기업은 생산성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소매와 금융서비스, 그리고 기계/장비 기업의 각각 36%(2016년: 21%), 그리고 33%(2016년: 31%)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2.5 인건비

그림 23: 인건비 - 산업별

How would you describe the business outlook for your industry in Korea within the next 2 years in terms of: Labor costs



인건비는 응답 기업들이 향후 2년간 가장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분야로 파악되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7%의 소비재/소매 기업 리더를 제외하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다소 혹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평가한 기업 리더들은 물류(31%, 2016년: 12%), 소비재/소매(21%, 2016년: 14%), 그리고 서비스(20%, 2016년: 18%) 부문에서 일부 파악되었다. 기계/장비 및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각각 73%과 50% 기업 리더들이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대부분의 산업분야는 다소 혹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관련 수치는 물류: 62%(2016년: 17%), 서비스: 60%(2016년: 27%), 에너지/화학: 58%(2016년: 64%), 소비재/소매: 57%(2016년: 64%), 제약/의료: 53%(2016년: 50%), 그리고 자동차: 53%(2016년: 88%)로 파악되었다.

### 3. 기업 도전과제

기업 도전과제는 경제, 재무/비용, 규제, 정치, 법, 사회/기간시설 분야에서 21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별되었다. 응답자들에게 5가지(크게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하지 않음, 중립, 다소 심각, 상당히 심각함)으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그림 24: 주요 5대 기업 도전과제 - 2017/2016/2015

상당히 심각/다소 심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된 주요 5개 항목

Top 5 business challenges by order of significance<sup>1)</sup> – Item comparison YoY

2017	2016	2015
<p>1 Economic growth of Korea 86.1%</p>	<p>1 Economic growth of Korea 73.5%</p>	<p>1 Economic growth of Korea 73.2%</p>
<p>2 Rising labor costs 73.1%</p>	<p>2 Ambiguous rules &amp; regulations 67.2%</p>	<p>2 Global economy growth 71.7%</p>
<p>3 Ambiguous rules &amp; regulations 68.5%</p>	<p>3 Global economy growth 66.7%</p>	<p>3 Local currency appreciation/depreciation<sup>2)</sup> 63.8%</p>
<p>4 Market access barriers 65.7%</p>	<p>4 Rising labor costs 65.2%</p>	<p>4 Rising labor costs 63.8%</p>
<p>5 Discretionary enforcement of regulations 64.8%</p>	<p>5 Local currency appreciation/depreciation 64.3%</p>	<p>5 Discretionary enforcement of regulations 58.7%</p>

1) Combined percentage of "Highly significant" and "Partially significant"; 2) Local currency appreciation/depreciation had more "Significant" responses than labor costs

비즈니스 환경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4년에는 한국경제 성장이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되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 기업 리더의 86%(2016년: 74%)가 사업활동에 있어 해당 항목이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3/4에 달하는 응답자(2016년: 65%)가 인건비 상승을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했으며, 법/규제(69%, 2016년: 67%)가 그 뒤를 이었다. 시장접근 장벽과 규제자유시행이 5대 주요 기업도전과제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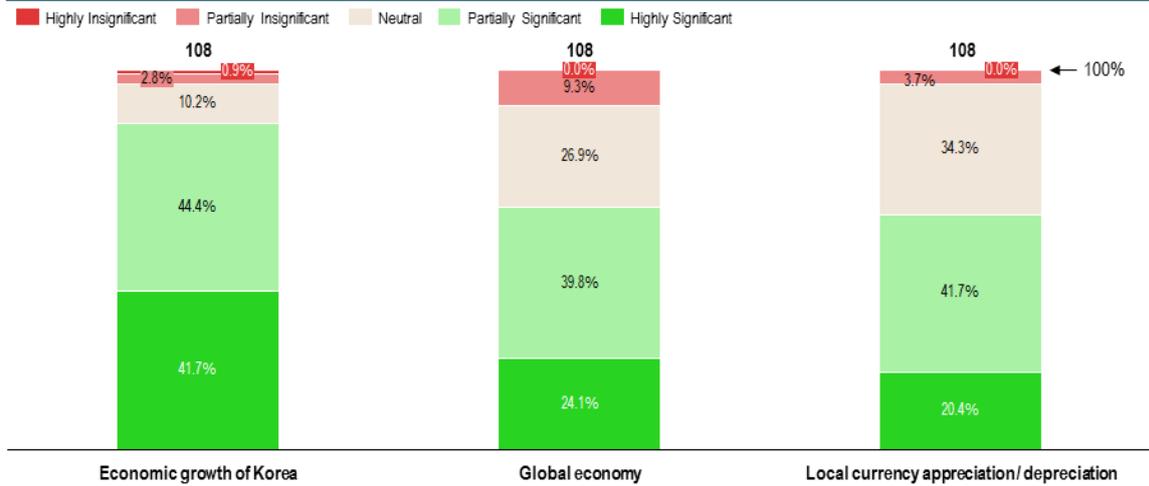
2017년 조사에서 시장접근 장벽은 응답자의 66%(2016년: 46%)가 기업 성공의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했다. 해당 항목은 최근 조사에서 항상 50% 미만을 기록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상당 수가 이를 도전과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유시행의 경우 올해 응답자의 66%가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항목은 2015년에도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57%로 주요 5대 과제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 3.1 경제/재무관련 이슈

그림 25: 경제 관련 도전과제

How significant you perceive the following challenges are to your specific business in Korea?

#### Economy related



기업 리더 중 86%(2016년: 73%)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사업활동에 있어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중립적이거나 심각하지 않다(다소 심각하지 않음, 크게 심각하지 않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각각 전체의 10%(2016년: 16%)와 4%(2016년: 11%)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발전 또한 한국에서의 사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2016년: 67%)는 세계경제 발전이 다소 혹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중립적, 그리고 다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각각 27%(2016년: 24%)와 9%(2016년: 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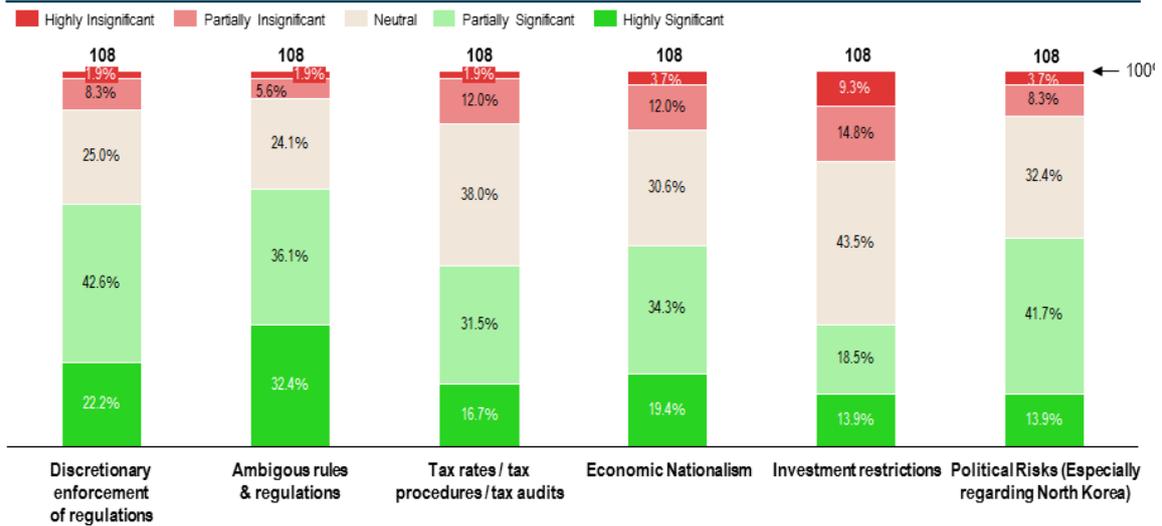
원화절상/절하가 다소 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응답자는 62%(2016년: 64%)였으며, 중립적, 그리고 다소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0%(2016년: 34%)와 4%(2016년: 6%)로 나타났다.

### 3.2 규제/정치관련 이슈

그림 26: 규제/정치관련 도전과제

How significant you perceive the following challenges are to your specific busines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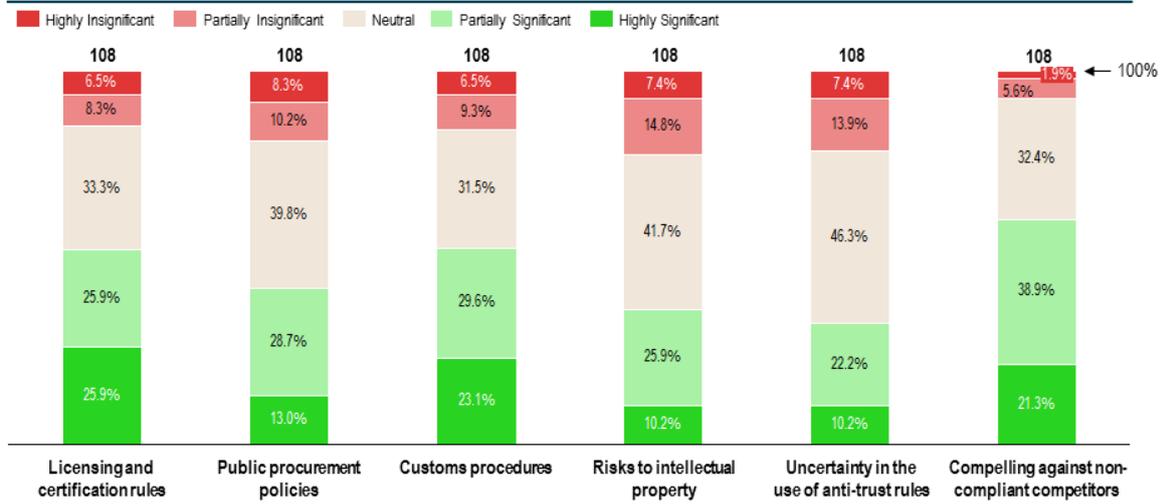
#### Regulatory/Political (1/2)



규제자율시행과 불명확한 법/규제가 규제/법 관련 이슈 중 가장 큰 도전과제로 지적되었으며, 정치적 위험이 그 뒤를 따랐다. 해당 분야에서 기업 리더들이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슈는 불명확한 법/규제였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응답한 리더들은 전체의 32%였으며, 36%는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했다(2016년에는 65%가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응답). 규제자율시행은 65%(2016년: 57%)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정치적 위험은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에게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2016년에는 기업 리더 중 26%만이 이를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상황이 바뀌어 응답자의 14%가 이를 상당히 심각함, 42%는 다소 심각, 32%는 중립적, 그리고 다소 혹은 크게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그 외 세율, 세무절차, 세무감사 및 투자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 국수주의가 도전과제로 지적되었으나 이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국수주의와 세율/세무절차/세무감사가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답한 기업 리더는 각각 54%와 48%를 차지했다. 투자제한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How significant you perceive the following challenges are to your specific business in Korea?

**Regulatory/Political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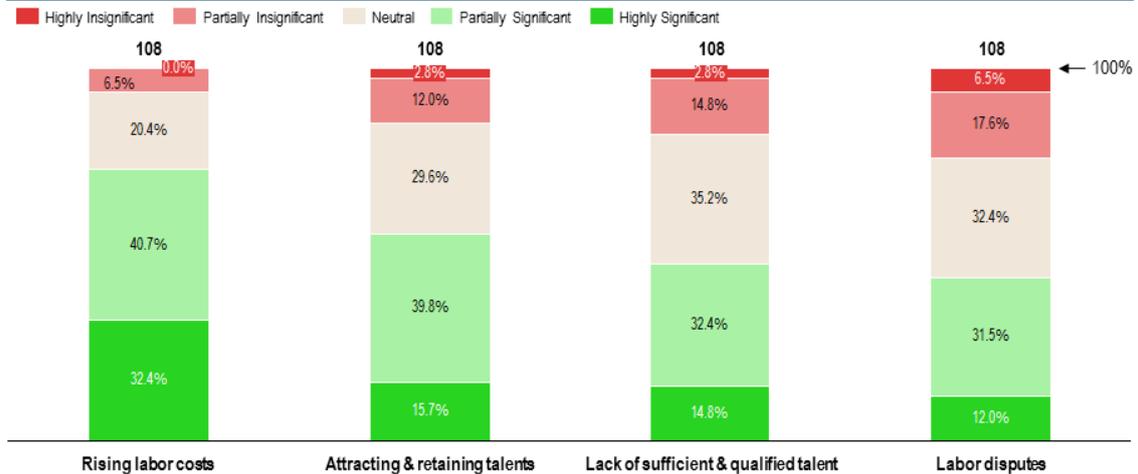
규제에 순응하지 않는 경쟁기업들은 여전히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있으며, 응답자의 60%(2016년: 55%)가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절차와 사업허가 및 승인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각각 53%(2016년: 45%)와 52%(2016년: 40%)로 파악되었다. 기업 리더의 42%(2016년: 28%)는 한국 정부의 공공 조달정책이 기업활동에 다소 혹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권 관련 리스크(36%, 2016년: 36%)와 반독점 규정의 불명확성(32%, 2016년: 30%)가 지적되었는데, 해당 이슈들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대다수 기업 리더들은 사업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노동관련 이슈

그림 27: 노동관련 도전과제

How significant you perceive the following challenges are to your specific business in Korea?

#### Labor re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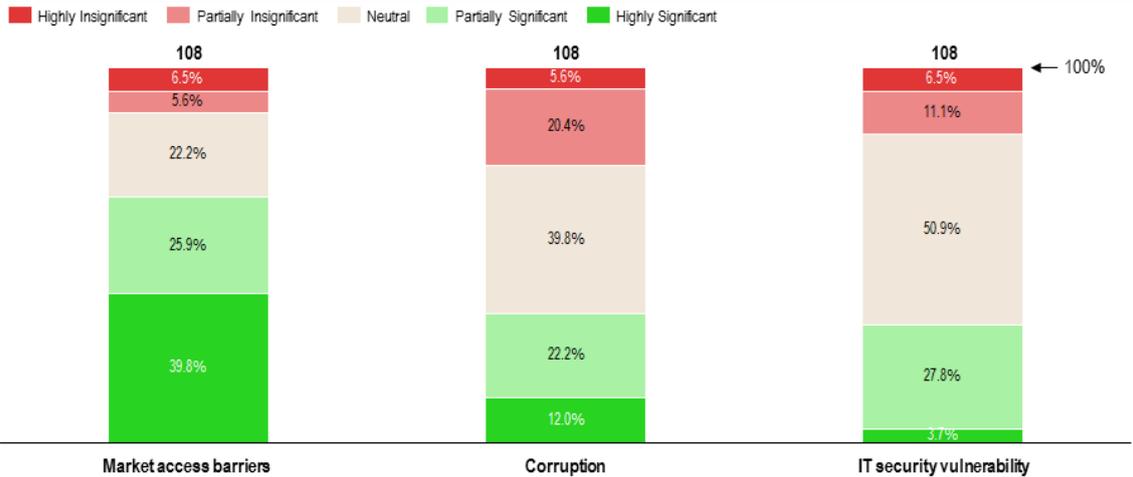
인사관리에 있어 인건비 상승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들의 주요 이슈로 파악되었다. 기업 CEO 의 32%(2016 년: 21%)는 인건비 상승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41%(2016 년: 25%)는 다소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상승만큼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재관리 역시 2017 년 조사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업 리더들은 인재 유치와 관리, 그리고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력부족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다소, 상당히 심각함), 이와 같이 답한 CEO 들의 비중은 각각 56%(2016 년: 50%)와 47%(2016 년: 47%)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분규 역시 여전히 사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 리더 중 44%(2016 년: 36%)가 노사분규를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 3.4 사회/기간시설관련 이슈

그림 28: 사회/기간시설관련 도전과제

How significant you perceive the following challenges are to your specific business in Korea?

#### Social/Infrastructure related



사회/기간시설 분야의 주요 도전과제로는 시장접근 장벽이 지적되었다. 기업 리더의 40%(2016년: 28%)는 이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다소 심각하다는 반응은 26%(2016년: 18%)로 나타났다. 반면, 중립적, 다소 혹은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2%(2016년: 31%)와 12%(2016년: 22%)에 그쳤다. 다시 말해, 기업 리더들은 전년 보다 기존 혹은 잠재적인 시장접근 장벽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부패 문제는 더 이상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CEO 들은 34%에 불과했으며, 이는 동 항목에 대해 44%를 기록한 2016년 조사보다 10pp 감소한 수치이다. 응답자의 40%(2016년: 43%)는 정부부패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다소 혹은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26%(2016년: 13%)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 리더들은 또한 IT 보안 취약 문제에 대해 2016년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보안 취약 문제가 다소 혹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응답한 CEO 들은 전체의 32%(2016년: 32%)였으며, 중립적, 그리고 다소 혹은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51%(2016년: 45%)와 17%(2016년: 24%)로 나타났다.

## 4. 한국경제의 원동력

성과동인은 규제/정책, 사회/기간시설 및 경제/교역 분야의 12 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파악했으며, 기업 도전과제는 경제, 재무/비용, 규제, 정치, 법 및 사회/기간시설 분야에서 21 개 항목을 통해 분석했다. 응답자들에게 5 가지(크게 중요하지 않음, 다소 중요하지 않음, 중립, 다소 중요, 상당히 중요)으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그림 29: 2017, 2016, 2015 년 주요 5 대 경제성과 동인

상당히 중요/다소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된 주요 5 개 항목

Top 5 economic performance drivers by order of significance<sup>1)</sup> – Item comparison YoY

2017		2016		2015	
1 Rule of law/Transparent policy-making	87.0%	1 Rule of law/Transparent policy-making	70.8%	1 Promote more fair competition	70.0%
2 Promote more fair competition	82.4%	2 Promote more fair competition	69.8%	2 Domestic consumption	69.0%
3 Domestic consumption	75.9%	3 Productivity growth	69.8%	3 Rule of law/Transparent policy-making	67.4%
4 Openness of Korean market to foreign goods & services	74.1%	4 Domestic consumption	62.8%	4 Productivity growth	64.0%
5 Productivity growth	73.1%	5 Openness of Korean market to foreign goods & services	62.0%	5 Capacity for innovation	61.1%

1) Combined percentage of "Highly significant" and "Partially 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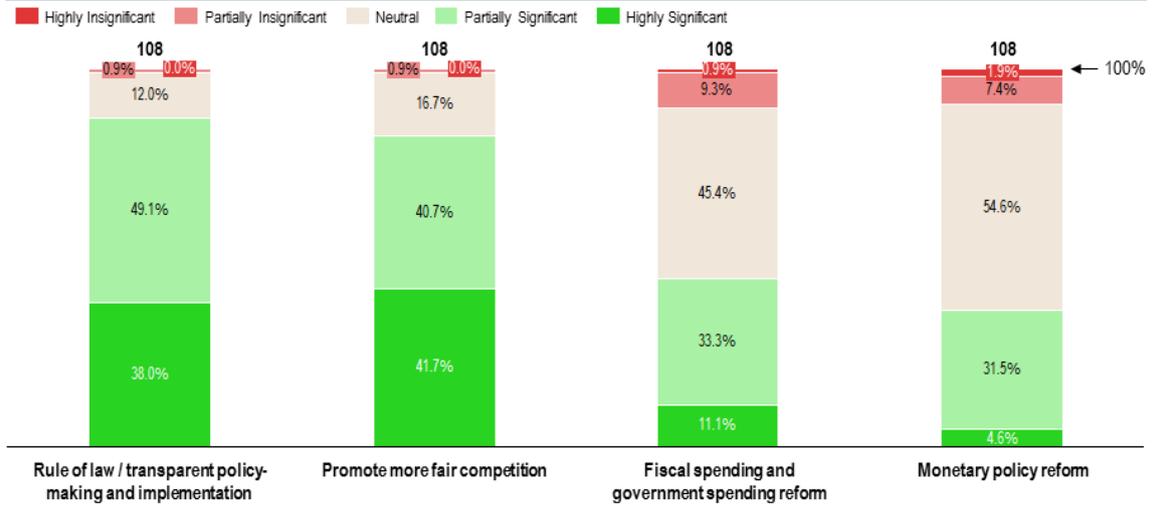
기업 리더 중 87%(2016 년: 71%)는 2017 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법치/투명 정책수립을 꼽았으며,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 촉진 82%(2016 년: 70%)이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 국내소비(76%, 2016 년: 63%)과 해외 재화/서비스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74%, 2016 년: 62%)이 파악되었다. 2016 년 조사에서 70%로 3 위를 기록한 생산성 향상은 2017 년 조사에서 다섯 번째 주요 동인으로 나타났다.

### 4.1 규제/정책

그림 30: 성과동인 - 규제/정책

How important are the following drivers for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 in the coming years?

#### Regulation/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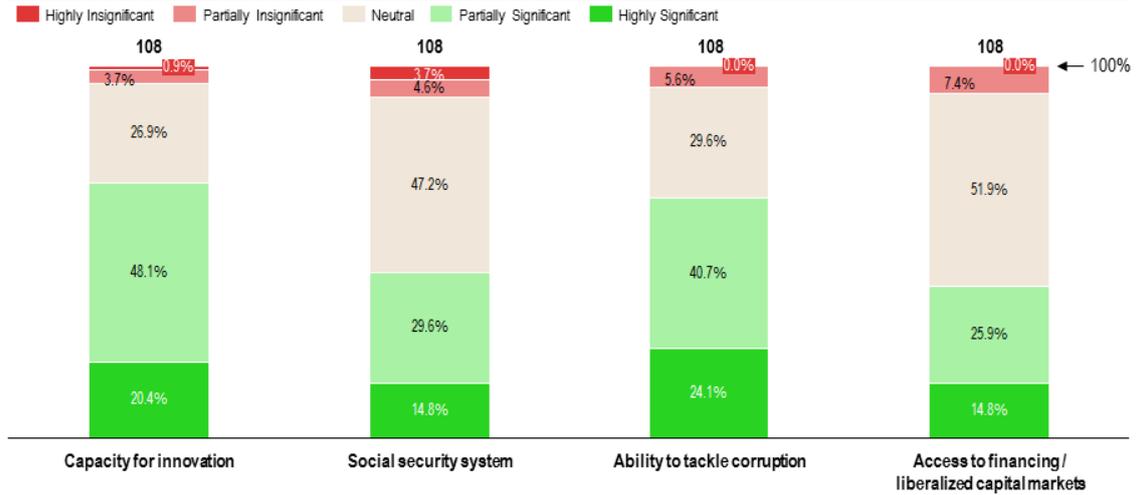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기업 리더 중 87%(2016년: 70%)는 법치/투명 정책 수립과 이행이 한국 경제성장에 다소 혹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 촉진이 82%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항목이 단독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 지출 및 정부지출 개혁, 통화정책 개혁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44%는 재무 지출 및 정부지출 개혁이 다소 혹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답했으며, 45%는 중립적인 의견을, 그리고 약 10%는 다소 혹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개혁 또한 비슷한 의견이 모아졌다. 응답자의 36%는 통화정책 개혁이 중요한 경제 동인이라고 답한 반면, 55%는 보다 균형을 갖춘 입장을 취했으며, 9%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4.2 사회/기반시설

그림 31: 성과동인 - 사회/기반시설

How important are the following drivers for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 in the coming years?

### Social/Infrastructure rel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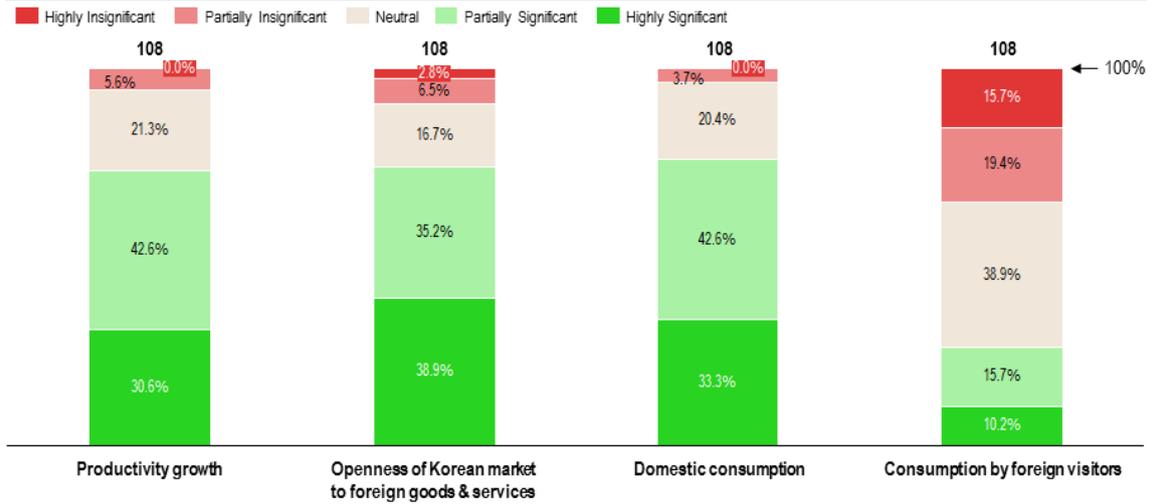
성장동인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혁신역량과 부패척결 역량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사회보장제도와 자금조달/자유화된 자본시장 접근이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리더의 69%는 혁신역량을 중요한 요소(다소, 상당히 중요)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는 51%를 나타낸 2016 년 보다 18pp 상승한 수치이다. 부패척결 역량이 다소 혹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한 기업 리더들은 전체의 65%(2016 년: 57%)를 차지했다.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CEO 들은 다소 균형을 갖춘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의 45%(2016 년: 34%)는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답한 반면, 47%(2016 년: 36%)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자금지원/자유화된 자본시장 접근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41%(2016 년: 36%)는 해당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52%는 중립적인 견해를 보였다.

### 4.3 경제/교역

그림 32: 성과동인 - 경제/교역

How important are the following drivers for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 in the coming years?

#### Economy/trade



경제/교역 부문에서 주요 경제동인으로 생산성 향상, 해외 재화/서비스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국내 소비가 파악되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 중 73%(2016년: 70%)는 생산성 향상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74%(2016년: 62%)는 해외 재화/서비스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이 기업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다. 국내소비가 다소 혹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리더들은 76%(2016년: 63%)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기업 리더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향후 수년간 경제 발전에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39%는 중립적인 입장을, 35%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다소 혹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한 이들은 26%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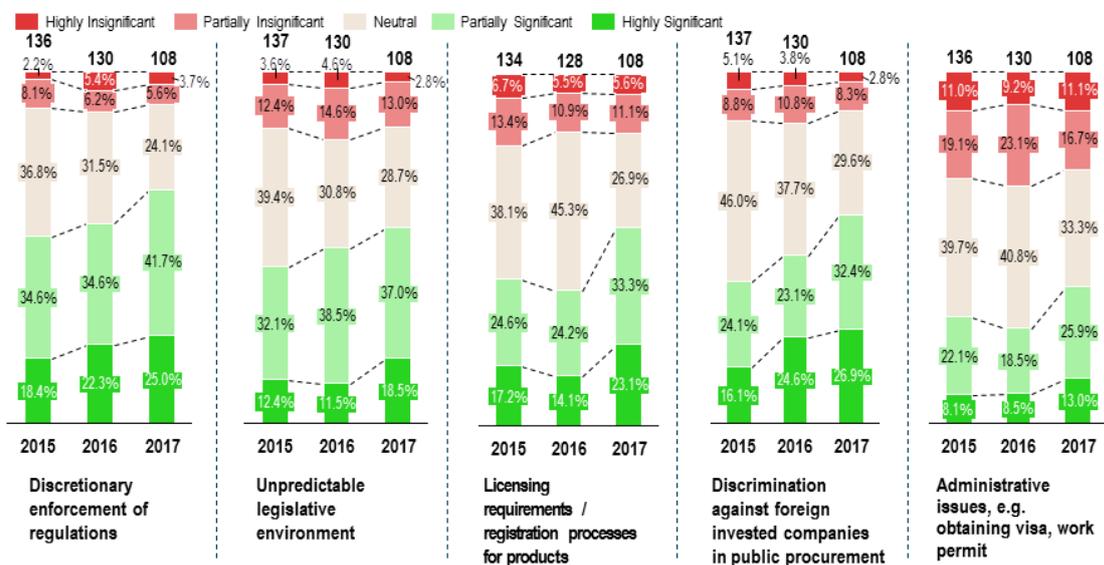
## 5. 한국의 법/규제 환경과 정부

한국의 법/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규제장벽, 한국에서의 소송제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한국 및 유럽정부의 대응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5.1 한국의 규제장벽

그림 33: 규제장벽 - 연간 비교

How significant are the following regulatory obstacles when doing business in Korea?



규제장벽완화 혹은 철폐는 기업성과 및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다. 전체 5개 기준에 관한 2017년 수집된 의견으로 기업 리더들이 전년 보다 최근의 발전양상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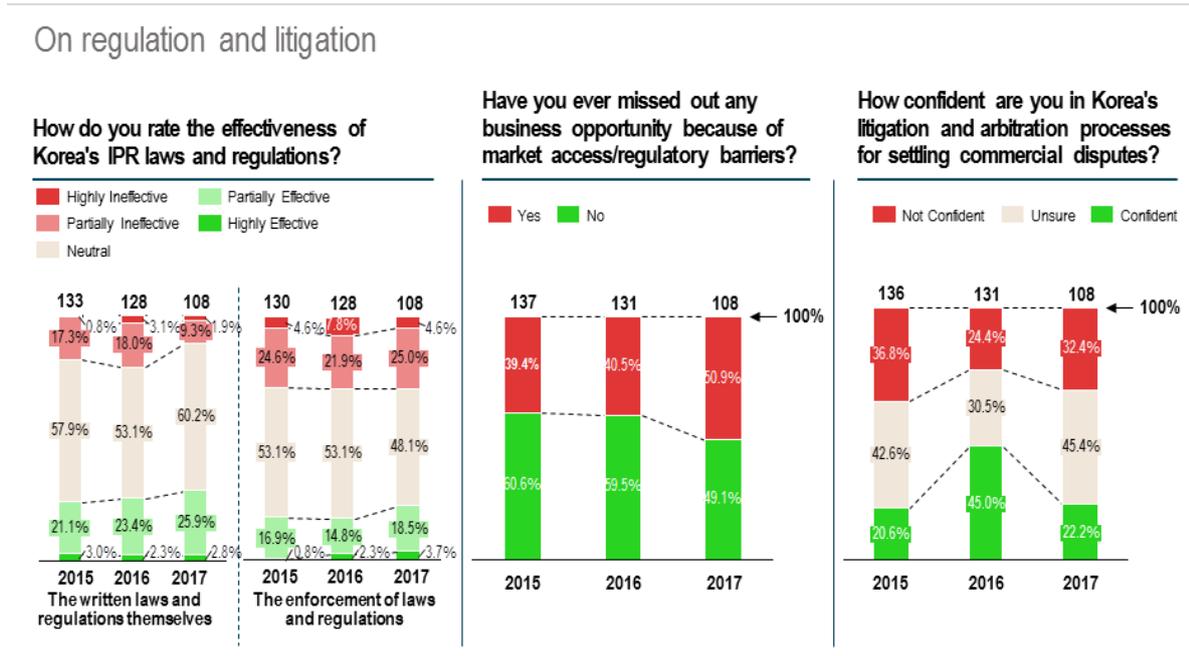
규제 자율이행과 불명확한 규제 환경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기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77%(2016년: 57%)는 자율 규제이행이 다소 혹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24%(2016년: 32%)는 중립적인 입장을, 그리고 9%(2016년: 12%)는 이를 다소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6%(2016년: 50%)는 불명확한 규제 환경이 다소 혹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중립적인 의견은 29%(2016년: 31%), 그리고 다소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는 16%(2016년: 1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허가 요건/등록/상품등록절차는 응답자의 56%(2016년: 38%)가 다소 혹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답했으며, 27%(2016년: 45%)는 중립적인 의견을, 그리고 17%(2016년: 17%)는 다소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약 59%(2016년: 48%)는 정부의 공공조달이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견해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공공조달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행정관련 문제에 대한 CEO들의 의견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016년 동 분야가 다소 혹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2017년 조사에서는 12pp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기업 리더의 33%는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그리고 28%는 다소 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2 소송 및 규제 신뢰도와 효과

그림 34: 규제 및 소송관련 대응



한국의 법 수립 및 집행의 효용성은 특히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저작권의 경우 유럽 기업들에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대표 중 29%(2016년: 26%)는 성문법과 규제가 다소 혹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답했으며,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11%(2016년: 21%)를 차지했다. 법/규제 이행의 경우 다소 혹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응답자들의 반응은 22%(2016년: 17%)로 나타났다. 다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은 30%(2016년: 3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기업 중 약 절반(2016년: 40%)가 시장접근이나 규제장벽으로 인한 사업기회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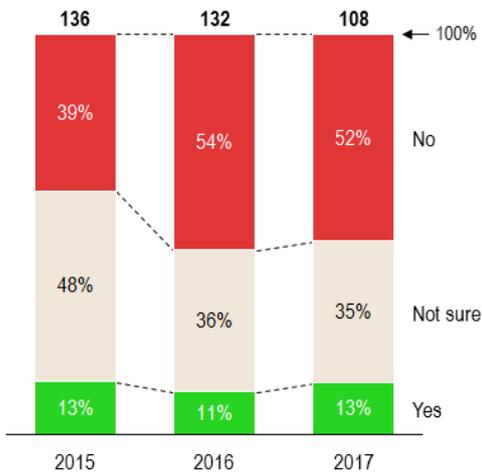
상업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및 중재절차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응답자의 22%(2016년: 45%)는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2015년 20%, 2014년 14%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45%(2016년: 30%)의 기업 대표들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32%(2016년: 24%)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5.3 정부개혁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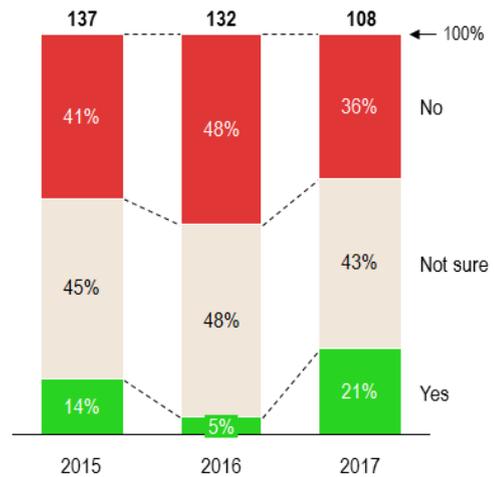
그림 35: 정부개혁 - 연간 비교

On government reforms

**Do you believe that reforms implemented this year have helped your business?**



**Are you confident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start to implement meaningful reforms?**



정부의 여러가지 과업 중 하나는 기업을 포함하여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법/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기업 리더 중 52%(2016년: 54%)가 2017년 이행된 정부의 개혁노력이 기업활동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35%(2016년: 36%)는 개혁활동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13%(2016년: 11%)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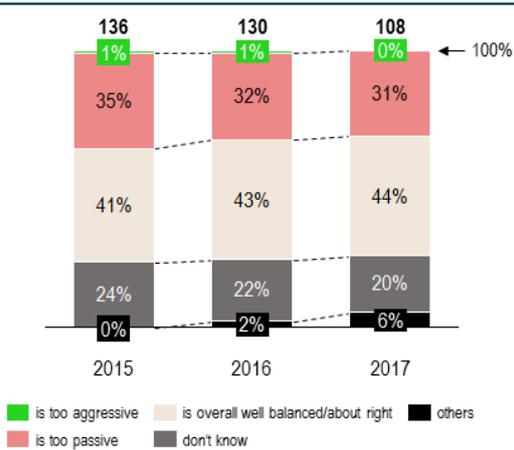
2018~2019년 개혁이행 전망은 2017년보다 다소 낙관적이다. 응답자의 21%(2016년: 5%)는 한국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을 이행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43%(2016년: 48%)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그리고 36%(2016년: 48%)는 정부가 향후 2년 내에 의미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 5.4 유럽과 한국정부 대응에 대한 입장

그림 36: 법/규제 환경 - 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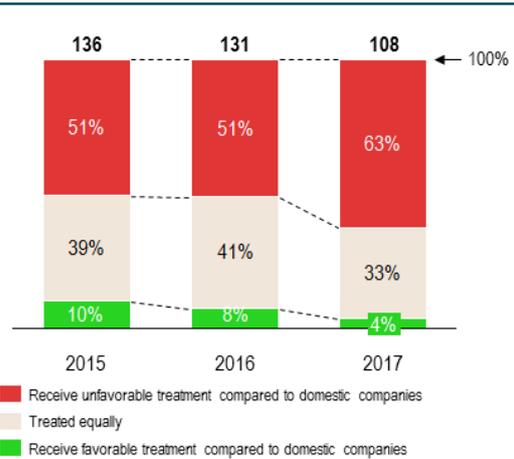
#### On European and Korean governments' actions

On market access and trade related issues do you believe that the position of the European institutions...<sup>1)</sup>



1) European Union or European Union Delegation (Korea), European states' ministries or embassies

Do you perceive any unfair or unfavorable handling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by the Korean government, compared with domestic companies?



대다수의 응답자들이(44%, 2016년: 43%) 시장접근 및 교역관련 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31%(2016년: 32%)는 유럽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EU 대표단이 한국정부에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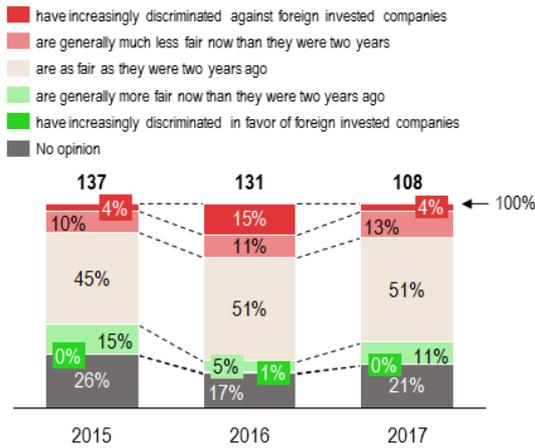
한국정부나 관련정부단체의 불공평 혹은 불공정한 대우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63%(2016년: 51%)는 불공정 대우를 받았으며, 33%(2016년: 41%)는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특혜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2016년: 8%)로 나타났다

### 5.5 기업환경관련 정부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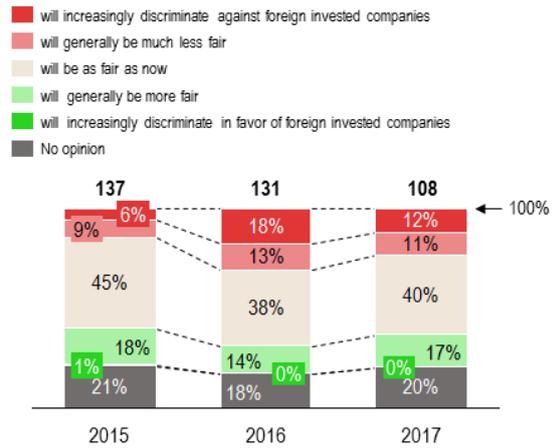
그림 37: 사업환경관련 정부정책 - 연간 비교

#### On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business conditions

Within your business sector, how have government policies relevant to foreign companies' business environment changed over the past two years?



How do you perceive government policies relevant to foreign companies' business environment will change over the next two years?



응답자의 14%(2016 년: 26%)는 정부정책이 불공정하거나 점차 차별적으로 변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51%, 2016 년: 51%)는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이 2년 전과 비교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11%(2016 년: 6%)는 외국기업 관련 정부정책이 보다 공정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혹은 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21%(2016 년: 17%)로 나타났다.

향후 2년 간의 전망에 대해 절반 이상(52%)의 응답자가 정부정책이 현재처럼 공정하거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1%는 공정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14%를 기록한 2015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질문에 의견을 전달할 입장이 아니라고 답한 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인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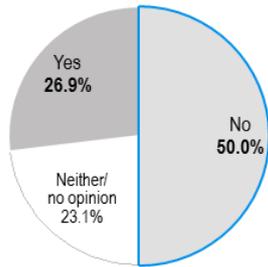
## 6. 새 정부와 정책이 미치는 영향

그림 38: 고용정책

### On employment policy

Do you think President Moon's dual policy goals of job growth and minimum wage increase are feasible from your business'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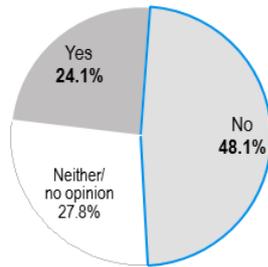
Σ 108



> Half of the respondents think promoting job growth and increasing minimum wage at the same time is not feasible

Do you think the youth employment quota, if expanded to companies as proposed by President Moon, could help companies generate job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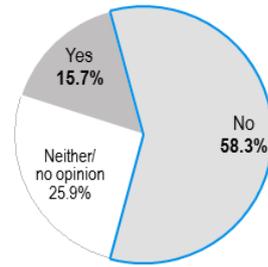
Σ 108



> Respondents who think expanding youth employment quota double will not help the job growth the number of whom think it will

Do you think that the government's push to convert non-regular to regular workers is compatible with job growth from your business' perspective?

Σ 108



> Majority of the respondents consider promoting job growth and converting non-regular to regular workers at the same time is not fea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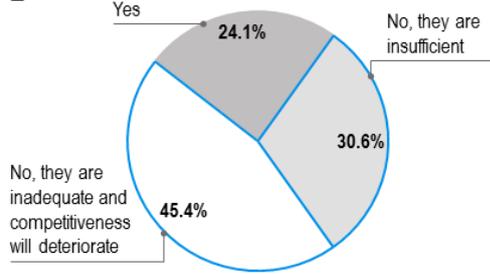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과 개인소득 증가를 중심으로, 고용촉진 및 최저임금제 보장을 통한 저소득자의 소득 증대 방침 등 2017년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응답자의 50%는 이러한 정부조치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27%는 해당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견을 보이지 않은 응답자는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이 나타났다. 기업 리더의 48%는 이러한 정부방침이 고용창출을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4%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의견을 접수하지 않은 응답자는 28%이었다. 정부수립 목표 중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58%는 고용 성장을 저해하며, 실현 불가능한 조치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16%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응답하지 않은 기업은 26%로 파악되었다.

그림 39: 일반 정책조치 및 외교문제

On general policy measures and diplomatic affairs

Do you expect the policy measures propos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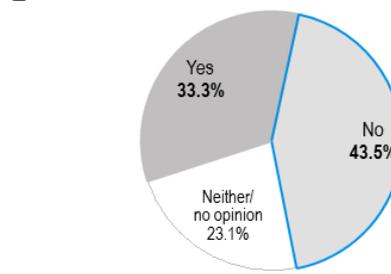
Σ 108



> More than 75% of the respondents doubt the positive impact of the new policies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arket

Does the heightened tens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pose a significantly greater risk to your business operation in Korea than before?

Σ 108



> Most of the respondents does not agree that the tense relation between U.S. and North Korea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risk to business operation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책 조치들은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립되었다. 응답자의 24%는 이러한 정책들은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31%는 불충분한 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45%는 이러한 정책들이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33%는 더욱 고조된 미국과 북한과의 긴장상태로 인해 이전 보다 유럽 기업들의 사업활동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44%는 반대 입장을 취했으며, 23%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거나 아무런 응답을 보내지 않았다.

## 결론

여전히 한국은 유럽 업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향후 2년 안에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하여 영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결코 쉽지 만은 않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유럽 업계의 한국 시장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입니다. 사업 전망은 산업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나, 물류, 소비재/소매, 제약 및 의료 서비스 분야가 좋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국은 규제체계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업계에서는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법률 및 재정, 법률 시행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들은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정부의 부재와 새로운 정권 교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재검토와 북한과의 지역적 갈등 또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기업환경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기업 경영 투명성과 공정한 정책 입안 및 그의 시행입니다. 경영진들의 63%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경영진들은 2017년의 정책 입안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향후 정책 입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 업계들의 의견, 입장 및 인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럽 업계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제 시장과 해외 직접 투자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 성장률, 정책 투명성 및 지속성이 긍정적으로 평가 되어야만 합니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이 입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부록: 응답자 프로필

그림 40: 산업별 분석

In what industry is your company a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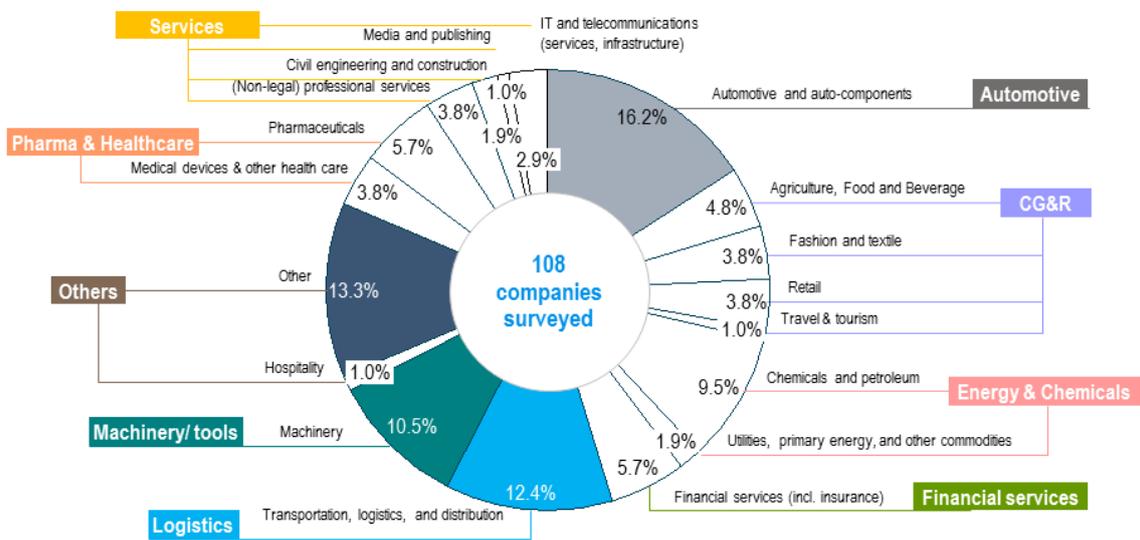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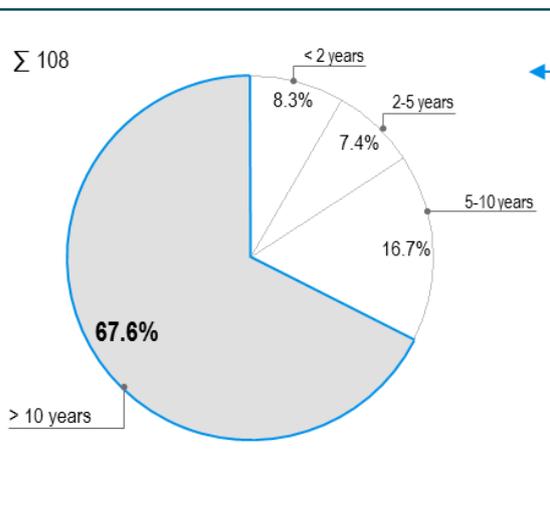


그림 41: 한국에서의 사업활동 년수

How long has your company been operating in Korea?

**Results**



**Implications**

- > Majority of respondents have been in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which implies that they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Korea
- > 8.3% of respondents are new to Korean market, a positive sign that European companies are still entering into the market; compared to 2016, this figure has increased slightly

그림 42: 소유구조 분석

Is your company fully owned by a European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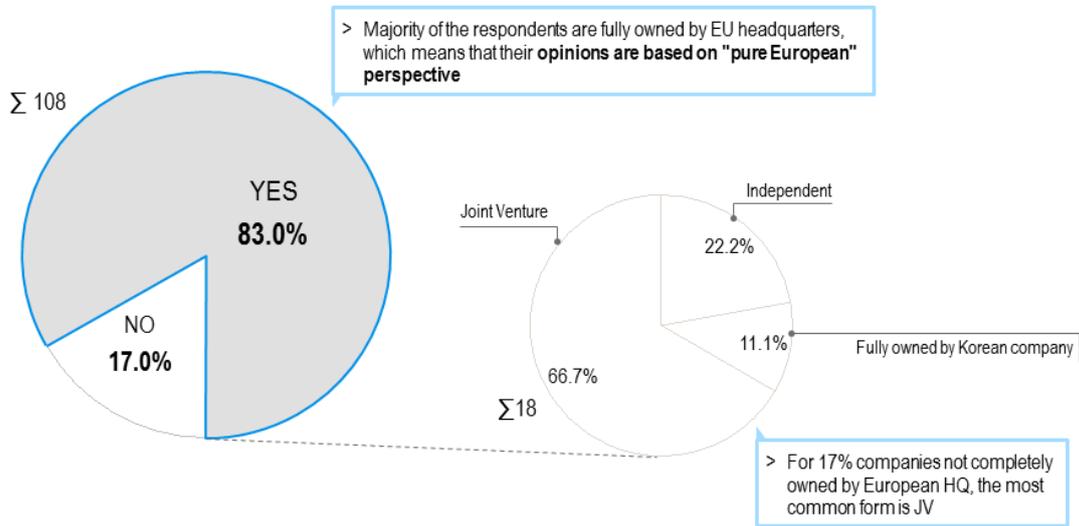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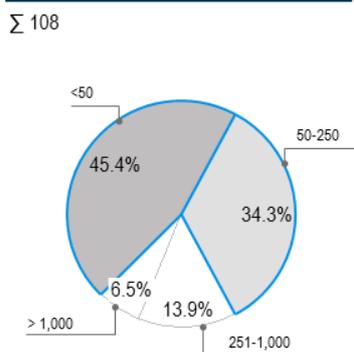


그림 43: 기업규모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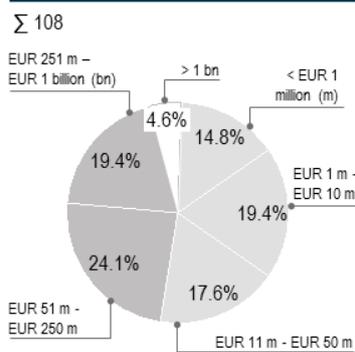
Employee number, revenue size and proportion

How many employees do you hav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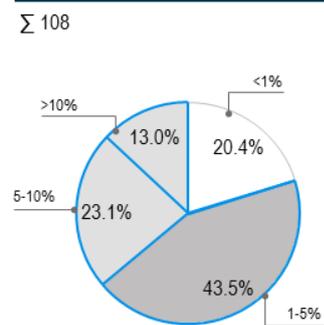
> Most of the respondents have under 250 employees, and this tendency has strengthened from 2016

What was the total revenue of your company in Korea in 2017?



> Respondents' revenue sizes are mostly varied from under 1 Mn EUR to 1 Bn EUR

What proportion of global revenues was generat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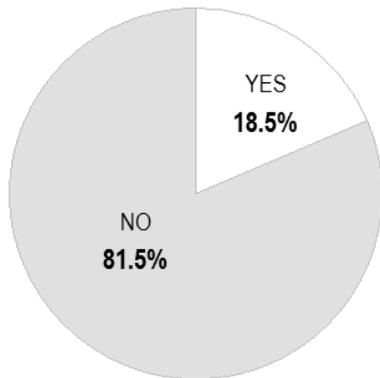
> Although Korean market accounts for less than 5% of the global revenue in most of the respondents, the portion of above 5% has increased compared to that in 2016

그림 44: 연구개발(R&D)구조 및 생산설비

Does your company have R&D or manufacturing facilitie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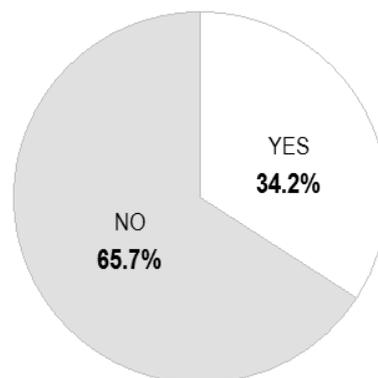
**R&D facilities**

Σ 108



**Production facilities**

Σ 108



## **Publisher**

### **Roland Berger Ltd.**

Tower 8 Bldg., 6F, 7 Jong-ro 5 gil, Jongno-gu  
Seoul 03157  
+82 (0)2 2288 0004  
[www.rolandberger.com](http://www.rolandberger.com)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5F, Seoul Square, 416 Hangang-daero, Jung-gu  
Seoul 04637  
+82 (0)2 6261 2700  
[www.ecck.eu](http://www.ecck.eu)

## **Photo credits**

Front Cover: vincentstthomas

## **Disclaimer**

This study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guidance only. The reader should not act on any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study without receiving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Roland Berger Ltd. and ECCK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resulting from the use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tudy.



In partnership with  
Roland  
Berger 